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면서도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 일지 않는 자들에게 참 크리스천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13)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51호 2013년 9월 21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높은 헌금비율, 영적건강의 자연스런 결과

CT, "CRC교인 평균헌금비율 주류교단 비해 압도적" 보도

북미주개혁장로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CRC)는 미국과 캐나다의 약 1000여개의 교회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종교개혁 지도자의 한 사람인 존 칼빈(John Calvin)의 신학에 근거를 둔 장로교와 같은 뿌리의 교단으로서 약 200년 전 화란의 칼빈주의자들이 더러는 박해를 피해서, 혹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북미주로 이주한 이민 신앙인들이 시작됐다. 세월이 지나면서 CRC에는 여러 소수민족 교회들이 가입하게 됐다. CRC에는 현재 100여개의 한인교회들이 가입되었으며 태평양 한미노회, CS(California South), GLA(Greater Los Angeles) 등의 노회에 소속되었다.

교세로 따지자면 CRC는 대형 교단은 아니다. 현재 251,727명의 교세는 남침례교단(SBC)에 비하면 한참 뒤져있고, 미조리시노드 루터교회의 1/10 수준이다.

그러나 교인수에 비해 헌금비율은 단연코 다른 주류교단에 비해 압도적이다. 즉 CRC 교인들은 자신들의 수입 중 6.1%를 헌금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에서 밝혀졌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CRC 교단의 헌금 비율이 바로 건강한 영성의 자연적 반응이라고 해석하고 있다(The Secrets of a Giving Church: Why one denomination's members give way more than your church's members do).

CRC 교인들의 헌금 비율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성경적 십일조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는 경제적 상황임에도 여전히 얼어붙은 현재 상황에서, CRC 헌금 비율은 다른 주류교단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전문 여론조사기관(Empty Tomb Inc.)에 따르면 미복음주의협의회(NAE)에 속한 8개 주류교단의 평균 헌금 비율은 3.7%이고, 진보적인 교회들의 연합체인 NCC에 속한 교회들은 평균 헌금액은 2.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CRC의 헌금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동교회 교인들이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풍요로움을 안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칼빈신학 교의 사회여론센터가 지난 6월 보도한 통계(Spiritual and Social Trends and Patterns in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에서 밝혀진 것처럼 현재 CRC 교인들의 평균 헌금 비율은 지난 2007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이 통계는 지구촌에 경제적 불황이 시작되기 전인 2007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헌금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CRC 교인들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CRC측은 이러한 교인들의 청지기 자세를 축하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비율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즉 교인들의 영성을 진단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인들의 영적 건강과 비례하는 자선과 헌금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CRC 교단은 전통적으로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는 지역교회에 십일조를 내라고 촉구하지 않는다. 대신 지역교회와 다른 사역이나 선교단체들에 헌금할 것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CRC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CRC교단내 조사결과 영적 건강이 높을 수록 헌금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기독교 학교들에 헌금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CRC 교인들의 헌금 비율은 그야말로 건강한 영적 건강에서 비롯된다고 분석된다. 동 교단 교인들 중 기도나 성경 읽기와 같은 영성 훈련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충만하다, 공급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

인들은 7.7%의 소득을 헌금하고 있는 반면에, "조금은 부족하다"고 밝힌 교인들은 5.9%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영적 너그러움과 관용은 영적 건강의 자연스러운 단순한 결과"라는 진리를 CRC 교인들은 헌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뉴욕교협 정부회장 후보들이 한 자리에 섰다. 왼쪽부터 회장후보 김승희 목사, 부회장후보 박태규 목사, 이종명 목사, 이재덕 목사.

뉴욕교협 부회장 선거 3파전

정부회장 후보등록 마감

회장후보 김승희 목사, 부회장후보 박태규 이종명 이재덕 목사

오는 10월 21일 제39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중훈 목사, 이하 뉴욕교협) 정, 부 회장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다. 뉴욕교협은 지난 16일 오후 5시 차기 정, 부회장 후보 등록접수를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 1명 부회장 후보 3명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현 부회장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담임)가 회장후보로 단독 등록했으며, 부회장 후보로는 박태규, 이종명, 이재덕 목사(기호순) 등 3명이 등록했다.

이외에 평신도 부회장 후보로 현 이사장인 이주의 장로(뉴욕에일장로교회 시무), 감사 후보는 김영철 목사(순복음중앙교회 담임),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가 등록을 완료했다.

단독후보 김승희 목사는 회장 당선에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회장 선거는 3파전이 됐다. 이재덕 목사(뉴욕사랑의교회 담임)는 두 번째 출마이고 박태규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는 처음이다. 이종명 목사(뉴욕강성장로교회 담임)는 3년전 부회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연령 문제로 회장 출마를 하지 못했다.

뉴욕교협 선관위(위원장 김원기 목사)는 16일 저녁 후보자들의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을 갖고 17일 오전 9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했다. 추첨결과 기호 1번 박태규 목사, 2번 이종명 목사, 3번 이재덕 목사로 결정됐다.

후보들은 10월 1일(화) 언론사 후보자 토론회를 갖게 되며 10월 17일(목) 오전 10시 뉴욕초대교회에서 치러지는 정기총회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유원정 기자)



2면 기독교적 색채 강한 동유럽에도 세속화 비탈!



3면 교회갈등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것 믿어라!



6면 새연재: 미전도종족 인도네시아의 고론탈로(Gorontaloese)



7면 새책 소개 "바보들의 행진" "착한 부자가 되라"

목회자 리더십 컨퍼런스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Azusa Pacific Graduate School of Theology)이 제공하는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민교회를 이끄는 참신한 리더십을 지닌 네 분의 목사님과 함께 배우고 나누어 목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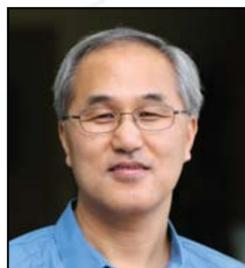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리더십과 위기관리



김한요 목사 (엘바인 베델한인교회) 리더십과 멘토링



노진준 목사 (한길교회) 리더십과 영적권위



노창수 목사 (남가주 사랑의교회) 리더십의 핵심가치

일시 10월 15일(화) 10:00 a.m. - 4:00 p.m.

장소 Garden Suite Hotel California Room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Free Self Parking)

- 등록비: \$30 (점심식사 포함)
- 등록문의: Tel. (626)857-2200, email: aher@apu.edu
- 10월 8일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등록해주세요.



AZUSA PACIFIC UNIVERSITY



시론

책임있는 지도자



최상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얼마 전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문명 인권의 다하우 나치 강제 수용소를 방문하여 나치의 만행으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대해 현화한 후 묵념하였다. 그날 신문에는 유대인 학살 현장을 찾은 메르켈 "슬픔과 부끄러움"이란 기사가 실렸다. 다하우 수용소는 나치가 만든 제 1호 강제 노역장으로, 수만 명의 유대인, 폴란드인, 정치범들을 신성한 독일 국가건설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죽인 곳이다. 독일은 나치의 만행을 고발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이곳을 보존해왔다.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동독출신인 메르켈이 그곳을 방문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날 "우리는 나치가 자행한 범죄와 2차 세계대전의 희생, 그리고 대학살(홀로코스트)에 영원한 책임이 있다. 깊은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나의 방문이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있는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르켈이 한 말에 대해 한 칼럼니스트는 "독일은 진정으로 과거사를 반성하고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품격 있는 나라로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각인되었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8.15 기념사에서 1993년 이후 빼놓지 않았던 한국, 중국 등에 대한 반성과 애도의 표현을 빼버렸다. 역사적 부채가 있는 한 나라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 시대를 이끌 수 있는지, 한 지도자가 어떻게 국민과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 아베총리는 메르켈총리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늦었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자세를 통해 그 개인, 그 민족의 미래적 희망을 볼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에 따라 사회, 국가, 종교의 위상은 달라져 왔다. 그러면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자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겠나?

모든 일에 정직하고 겸손하며 투명함이 있는 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 성격이 모가 난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는 포용성이 있는 자, 학연, 지연, 친분에 따라서가 아닌 인격과 재능,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사람을 기용하며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추진력이 있는 자, 매사에 심사숙고하되 주변의 상황이나 지도자 자신의 혼란으로 우유부단하게 처신하며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 자, 나아가 모든 일에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덕을 세우는 자여야 할 것이다. 지도자의 한마디의 말은 천금과 같아야 한다.

한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의 지도자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책임 있는 언행이다. 공인으로서의 언행을 통한 성숙한 인격, 잘못된 것을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고집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잘못을 범했을 때는 솔직하게 사과할 줄도 알고 책임을 지는 모습, 자존심보다는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으로 하나 되게 하는 화합의 지도력을 가진 자,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진분과 인정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예, 아니요"를 분명하게 하는 절제된 지도자가 필요하다.

요즘 한국과 미국의 각 교단 협의회에서는 선거가 한창이다.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 그 교단, 단체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과거를 청산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갈 것이다.

기독교적 색채 강한 동유럽에도 세속화 바람!

뉴욕타임스, 슬로바키아정교회 도입기념 주화 십자가도안 삭제논쟁 보도

유럽은 기독교적 가치와 제도가 동일시되던 사회였다. 그러나 인본주의를 앞세운 비종교적 가치와 세속적 제도로 유럽은 몸살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합리화와 같은 사회 발전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사회생활과 통치의 모든 측면에서 권위를 잃고 있다.

뉴욕타임스(NY Times)는 최근 유럽연합이 슬로바키아에 정통기독교회(가톨릭)가 들어온 기념을 위해 만든 주화에서, 십자가를 삭제하라는 지침을 통해 더욱 더 가속되고 있는 유럽의 세속화 과정을 보도하고 있다(A More Secular Europe, Divided by the Cross).

슬로바키아의 즈볼렌스키 대주교는 3년 전인 지난 2010년 유럽연합 집행부가 있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을 방문했을 때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유럽연합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유럽연합은 종교에 대해 관대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유럽연합의 집행기구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에게 2013년 여름 출시 예정인 기념 동전에서 십자가 무늬를 빼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이 동전은 기독교가 슬로바키아에 들어온 지 1,150년을 기념하기 위해 슬로바키아 정부가 만든 기념 동전이다. 지역 예술가가 디자인한 이 동전에는 정교회 기독교를 전한 켈트와 메토디우스비잔틴(Byzantine) 제국의 수도사가 새겨져 있고, 이 수도사 머리 위에는 후광이 있으며, 수도사의 의복에는 십자가



기회를 유지해왔다. 1957년 로마조약(Treaty of Rome)과 다른 유럽연합 창설 문서들은 '하나님'과 '기독교'라는 단어를 담지 않았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본부를 둔 연구와로비단체인 '기독교인 차별과 무관용 감시단(Observatory on Intolera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Christians)'의 책임자 쿠글러(Gudrun Gugler)는 신앙은 공적 영역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생각과 아주 강고 급진적인 세속주의가 유럽에 만연해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독교가 수세기 동안 불공정하게 유럽을 지배해왔다는 기독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 유럽에 존재해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당국자 본 슈너베인은 이러한 반기독교 문제를 부인했다. 유럽연합이 종종 종교를 배제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이들을 모두 상대하고 있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종교와 세속주의 단체들 모두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갖고 있으며 또 이 조항을 아주 중요하게

유럽연합 공동 정체성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세속주의 부상

무늬가 있었다(사진 참조). 유럽연합은 이 동전의 도안이 하나의 종교에 치우치는 것을 금한 유럽연합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았다.

즈볼렌스키 대주교는 유럽연합이 종교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기독교 전통을 배제하고 있다고 탄원했다. 유럽연합이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세속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 그리고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슬로바키아와 함께 천주교인이 대다수를 이루는 크로아티아가 2013년 7월에 가입하면서 28개 소속 국가를 거느린 국가 집합체가 된다. 즈볼렌스키 대주교는 모래알 같은 유럽연합의 국가들을 묶어주는 아주 드문 요소는 수백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라고 말했다.

유럽은 끝날 줄 모르는 경제 위기에서 함께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공통된 목표 의식과 연대감이 필요한데, 종교는 오히려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은 세속화된 서부 유럽과 강한 종교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부 유럽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폴란드,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가 이러한 동부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유럽 전역에서 단호한 세속주의자들과 수세기 물려 있는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충돌하고 있다. 유럽의 공동된 대의를 형성하는 유럽위원회의 논의에 불참한 모든 의원들은 무신론자들로부터는 종교인들을 두려워하는 겁쟁이라는 비난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로부터는 사탄의 부하라는 비난을 받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종교 단체와 세속 단체 모두와의 관계를 관할하는 당국자인 본 슈너베인은 유럽 위원회가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유럽에는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으며, 설령 이것을 부인하는 자라도 최소한 과거 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한 역사는 부인하지 못한다. 유럽 전역에 대부분이 비어 있지만 교회와 수도원이 위치해 있으며 대학들은 중세 기독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문양과 국가와 국가들에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 존재해 있다.

십자어는 파란색 바탕 위에 12개 노란색별이 원을 이루고 있는 유럽연합의 깃발도 기독교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사진 참조). 지난 1955년 이 깃발을 고안한 프랑수아 친주교인

헤이즈는 12개의 별이 있는 성모 마리아의 관에서 영감을 받아 이 깃발을 만들어 냈다. 이 12개의 별이 유로 통화의 모든 동전에도 새겨져 있다. 즉 유럽연합의 깃발과 동전에는 기원후 9세기 신성로마제국의 첫 번째 통치자인 샤를마뉴(Charlemagne) 황제에 의해 유럽에 기독교 문화권이 형성됐던 그 정신으로 유럽이 연합돼야 한다는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당국자들은 12개의 별은 유럽인들의 연합과 유대 그리고 조화를 상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대 유럽 역사에서 유럽 대륙은 연합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종교 그리고 종교의 영향력과 일정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제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슈너베인은 밝혔다.

한편 슬로바키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유로 통화를 쓰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슬로바키아 정부에게 기독교 전파 1,150주년을 기리는 기념 동전의 도안을 변경하라고 주문했다. 집행위원회는 슬로바키아 정부에게 이 기념 동전 도안에 나오는 후광과 십자가 자체가 문제되지 않지만 유로 통화를 쓰는 다른 국가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종교적 다양성이라는 이해관계로 따지면 삭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subscription rate.

리더십 박사과정 입학안내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유능하고 창의력을 갖춘 실력 있는 리더로 가는 첩경"

Midwest Leadership Program 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지성과 인성, 영성과 리더십을 통한 소통의 공간이며 비전을 세워갈 동지를 만나 네트워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능력을 향상 시키며 리더로서의 학문적 배경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최고의 과정입니다

본교소개

- 1.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여개국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 www.midwest.edu)
2.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 프로그램.
3. 본교는 전 세계 리더십분야 교수들과 CEO로 구성된 국제리더십협회(ILA) 회원대학교로서 전세계 리더들의 네트워크에 동참할 수 있음.

과정

1. 리더십 박사 학위과정, DCL 48 Credit Hours

자격

- 1. 대학, 대학원석사 학위 이상자 (전공 관계없음)
2. 각 전문분야 중사자 (영관급 이상의 장교, CEO, 경영인, 학교장,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이상, 부장급 경력 5년 이상인자, 목사, 선교사, 장로, 단체인, 여성전문인, 체육지도자, 전문분야 경력 15년 이상
3. 리더십 박사 연구과정- 전문분야 경력 10년 이상자, 학력제한 없음

* 2013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하면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점 취득과정과 학위취득 절차

- 1. 직장파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Online 혹은 집중강의를 통해 학위취득 가능.
2. 미국에 유학하여 (SEVIS I-20 Form 발행) 학위 취득 가능.

Study Options

- E-Learning Courses and Blended Courses
• On campus courses - SEVIS I-20

문의 및 상담: 리더십박사과정 코디네이터 손동원교수 covenant@unitel.co.kr

Midwest 동문

- 강병도 박사 (장신대학교 설립자, 전, 총장)
구두희 박사 (전, 속대 총대 학장)
권순원 박사 (보이스 대표)
김광호 박사 (Midwest 총동맹회장)
김남길 박사 (광운대 교수, 한국총동맹회장)
김두원 박사 (영남 총학생회, 연영 총동맹 회장)
김동원 박사 (가나안 총동맹회 회장)
김소영 박사 (한예총총연합회, 대한대 교수)
노병진 박사 (전, 대일, 전, 나사렛대 부총장)
박승준 박사 (한울고 교장, 전, 로타리총장)
박준근 박사 (한국유희비엔센터 대표)
박종민 박사 (New Global Leadership 회장)
사성욱 박사 (안동대 미대교수, 미술평론가)
서성욱 박사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염영준 박사 (GGU 명예총장, 전, 기교협대표)
오세걸 박사 (상신대 교수, 전, 광명대학원장)
유호준 박사 (미국정신과리사, KWMC 임원)
유복원 박사 (전, 중앙유대 학장, 교회음악협회 이사장)
윤장기 박사 (예음 총장, 전, 예장(7기) 총회장)
이상진 박사 (KWMC 발행위원장)
이상희 박사 (안양 생원회 이사장)
이영희 박사 (광명영광교회, 전, 나사렛성경간도 권도)
이태환 박사 (전, 영동고등학교 교장)
임종우 박사 (배재대학교 유대 교수)
장근기 박사 (예장백석 총동맹회장)
정근호 박사 (전, 과거차장, 전, 호서대, 영지대총장)
정영준 박사 (전, 고신연수사 사장, 전, 기독교보 사장)
정영진 박사 (New Global Leadership 회장)
최영희 박사 (전, 순복음신학교학장)
최병우 박사 (전, 예장총합 총회장)
최성규 박사 (전, 대한사회복지사업회 회장)
최필식 박사 (Kinnet 사무총장, KWMC 사무총장)
전도수 박사 (전, 바울신학교, 브라운칼 신학교)
황영희 박사 (안양 생원회 회장)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usa@midwest.edu (636) 327-4645, 070-8690-2662

교회갈등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 믿어라!

리더십저널, 달라스신학교 앤드류 사이델 박사의 갈등해결원리 소개

교회에서도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그러나 충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없고, 또 충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교회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죽어있지 않다면 교회의 사역은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과 저항하는 쪽이 나타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회가 성장할수록 그 안에는 아직 미완성된 인격의 소유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교회의 갈등은 예상 가능한 사이클을 따르는데, 이 단계가 하나씩 진행될수록 교회의 구성원들이 겪는 고통은 커진다. 1단계, 갈등을 일으킬만한 이슈가 떠오른다. 2단계, 그 상황에서 각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여기서 교회 구성원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각자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성도들은 그다지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러나 2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3단계,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고, 4단계, 동맹세력을 결집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아주 커지게 된다. 그리



보지 않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갈등을 경험하는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고양된 상태가 아닌 안정되었을 때 갈등을 다루고 사람들이 서로 파벌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리더 자신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을 경우 자신의 죄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만약 내가 당신에게 잘못을 한 것이 맞다면..." 또는 "사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긴 하지만..." 식의 기술적 회피나,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 또는 방어적 합리화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할 의지를 밝혀야 한다.

교회의 문제는 이슈가 드러났을

리더는 교회갈등 전개 상황 맞게 문제해결 위한 바른 태도 취해야 기도시간은 꼭 갖고 감정적 안정 상태에서 문제에 초점 맞추도록

고 5단계, 이 세력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한 전략적 행동을 펼치기 시작하면 결국 6단계, 대면하여 정면으로 싸움이 벌어진다.

만약 6단계 대면을 통해 7단계, 문제 해결의 단계에 이르면, 즉 어느 한 쪽이 물러서거나, 아니면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

거나, 아니면 적당히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여 타협하거나, 가장 좋은 경우 서로가 문제를 해소하고 협력하는 일이 벌어진다. 비록 아픔을 겪었다라도 갈등은 해소된다. 그러나 이런 해결이 이뤄지지 못하면 8단계, 갈등의 이슈를 재정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다시 그 이슈가 갈등을 일으키는 1단계로 돌아가서

로의 적개심이 상승한 상태에서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이슈가 터지고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고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와 사람을 찾는 일들이 반복된다.

교회 리더는 교회의 갈등이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에 맞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우선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고, 교인들이 나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에 대한 집중을 통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2면에서 계속)

정치와 종교를 엄격히 분리하는 프랑스는 슬로바키아 동전이 법적으로 자국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슬로바키아 동전에 기독교 상징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반대를 했다. 반면 정치와 종교가 긴밀히 연결되었는 그리스는 이 기념 동전에 나오는 키릴과 메토디우스(Methodius) 수도사가 그리스 영토에서 태어난 이들이기 때문에 동전 도안의 변경에 반대했다.

유럽연합에 비판적이던 이들은 이번 동전 도안 논쟁을 빌미로 유럽연합이 각국 내정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악한 세력이라고 몰아부쳤다. 슬로바키아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슬로바키아 국민당도 유럽연합이 사탄의 세력 아래 있다고 비난했다.

유럽연합이 사탄의 부하라는 주장은 기독교 근본주의 극단주의자들 가운데 확산돼온 주장인데, 유럽연합이 성경의 계시록에서 언급된 말세에 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주요 지도자들이 천주교인이며, 유럽연합을 창설한 이들도 기독교인이다. 전후 독일의 초대 총리인 콘라트 아데나우어와 기독교 목사의 딸인 독일의 현 총리 메켈(Angela Merkel)은 유럽연합의 과거와 현재의 지도자이며, 기독교를 소리 높여 대변하는 이들이다. 메켈 독일 총리는 자국에 무슬림이 많아진다는 지지자들의 우려에 대해, 독일이 너무 많은 이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은 기독교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유럽연합 집행부는 종교

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영국의 에쉬톤 대학교 교수이자 2012년 출간된 '유럽연합의 종교 상황: 신의 존재가 중요한가?(Representing Religion in the European Union: Does God Matter?)'의 편집자인 루스테안(Lucian Leustean) 박사는 말했다.

유럽에는 잘 조직된 세속주의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은 작은 빌미만 있어도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이나 무종교인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루스테안 박사는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유럽 종교인구와 종교에 대한 대중의 입장 변화라고 설명했다.

유럽 전역에서 교회 출석율이 하락하고 있고, 신에 대한 믿음과 이에 대한 문화적 유산도 시들어가고 있다. 반면 현재 유럽에서 가장 빠

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이다. 2011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영국에서 하나님의 존재보다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이들이 더 많다. 2010년 조사에 의하면 유럽연합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90%에 이른다.

동유럽 공산주의의 몰락과 종교성이 강한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은 유럽의 세속화 확산을 더디게 하는 역할을 했다.

2000년대 초반 유럽연합이 헌법을 마련할 때 유럽의 기독교 유산에 대한 언급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강한 저항을 맞아 실패했다. 그러나 2007년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 비록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다시 무산됐지만 '유럽

단신

미주크리스천문협 제 27회 신인상 발표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회장 정지운목사)는 제 27회 신인 등단자를 발표하고 9월 28일(토) 오전 11시 작가의 집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매년 크리스천문학을 발행하고 있는 본 협회는 올해에도 시, 장편소설, 수필, 단편소설, 생활수기 등의 분야의 신인작가를 발굴했으며 심사위원으로 최선호, 김문희, 정지운, 강정실, 남소희, 남원씨 등이 수고했다.

이번 신인작가로 등단한 이들은 시부분에 김환주 '달과 신발', 특별상 이민기 '한 걸음', 수필 작가 이민우 '카드에 비친 추억', 장편소설 오은파 '김심장이 되어', 단편소설 작가 이마가렛 '자스민', 생활수기 작가 이석자 '좋은 것은 나중에 온다'가 선별돼 시상하게 된다. 자세한 것은 (213)249-0771, (310)612-9580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주 이단상담원훈련세미나

2013년 미주 이단상담원훈련세미나가 24일(화)부터 사흘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양선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린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원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가 강사로 서게 되는 본 세미나는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대표 한선희 목사)가 주최하고 미주 내 언론단체와 한인성경선교회 후원했으며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훈련을 받게 된다.

이단상담자가 되기 원하는 분이나 이단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하며 등록에 관한 문의는 (323)823-0691, (818)621-1567 또는 craaha@gmail.com으로 하면 된다.

강사 진용식 목사(사진)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 예장합동총회 이대위 연구부과장, 안산 상록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제 6차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

LA카운티정신건강국(LACDMH)이 '제6차 종교계지도자와 함께 하는 LA카운티정신건강국세미나'를 26일(목) 미주평안교회에서 개최한다. '대화소통법'이란 주제로 개최될 본 세미나는 한인 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1세대 부모와 2세대 자녀간의 대화, 부부간의 대화부족, 의사소통의 문제를 잘 관리하고 예방해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정신건강의 위험요소 및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며 앞으로의 변화와 도전속의 삶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강사로는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코디네이터인 안정영 씨. 본 세미나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간단한 간식이 준비된다. 자세한 문의는 (213)738-3446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의 문화적 종교적 인도주의적 유산(cultural, religious and humanist inheritance of Europe)이라는 문구로 대체됐다. 또한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의 종교 단체와의 대화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동시에 '철학적, 비교백적 단체'에게도 동등한 처우를 주문했는데, 이 단체에는 종교에 적대적인 철학을 가진 단체들이 포함되었다.

슬로바키아의 즈볼렌스키 대주교는 유럽연합이 하나님을 위한 더 많은 영역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럽연합의 연합을 위한 노력은 실패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종교야말로 유럽연합의 내적 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키릴과 메토디우스 수도사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후광과 십자가가 있는 원래의 기념 동전 도안을 고수하기로 일단 결정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원래의 기념 동전의 출시 시점을 두 달 늦추면서 슬로바키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끝내 후광과 십자가가 없는 도안을 관철시켰다.



미주신학대학/대학원 America Theological Seminary

학생모집

충성되고 신실한 사명감으로 주의 사역에 헌신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대학/대학원 과정

개강일시: 2013년 8월 16일(월) 저녁 6시 30분
(강의는 월, 화, 목 저녁 6시 30분 - 10시까지)

장소: L.A. Campus
3407 6th St 705C (3층 Parking Lot 주차)
(6th St. and Catalina)
Los Angeles CA 90020

입학안내 : (213)435-2266, 819-3305, 284-0050

* 본대학은 예수교장로회 국제연합총회와 미주개혁장로교단 인준 신학대학입니다.

President America Theological Seminary
목사 김상우 Ph.D.



후임목사님 청빙

뉴욕실로암 장로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후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Reformed church in America 교단에 목사로 자격을 갖추신 분
- 제출서류
 - 1) 정규 신학교 M.Div. 졸업증명서
 - 2) 목사 안수 증
 - 3) 이력서(사진, 가족, 학력, 경력사항)
 - 4) 자기 소개서
 - 5) 목회 계획서
 - 6) 최근 영상 한국어 설교2개 와 영어설교 1개
- 제출 마감 2013년 12월31일
- 제출처 The Siloam Reformed Church of NY
35-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 문의: 김인규 장로, (347)419-2929, inkyul@gmail.com

본교회에서는 EM중고등부를 담당하실 파트타임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본교회에서는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합니다.

뉴욕실로암 장로교회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Grace period가 삽니다

우리가 월말까지 내야 되는 빌(Bill)인데 월말을 지나 새달 3일이나 5일 심지어 일주일이나 내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다. 그런 기간 말하자면 정한 기간이 지났어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을 Grace period라고 한다. 텀으로 더 주는 Second

Chance 글자 그대로 Grace Period이다. 그러나 이 기회도 그냥 보내면 그때는 여지없이 벌금이 부과된다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돌로 구별할 수 있다. 하나는 육체의 지나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

의 남은 때이다.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했는데 먼저 지나간 때에 대해서 '족하다'라고 말한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자기 인생의 지나간 때를 돌이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다.

둘째는 인생의 남은 때가 있다.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바로 아직 때가 남아있다는 말씀이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the rest of your earthly life)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다. 이제 그 남은 시간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기간이라기보다는 second chance라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이다.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 자신을 마지막으로 단장할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을 뵈기 전에 Grace

period로 주어질 것이다. 이 남은 때는 주님께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단장하는 시간으로 주님을 위한 몫으로 구별해놓아야 한다.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지나간 때처럼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마지막 준비의 기회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세상적으로 잘나가는 분이 세상과 술에 빠져 살았다. 그동안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삶이 바꾸어지면서 그 새로운 영적 안목으로 자기 육체의 남은 때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삶의 자세를 잡았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여전히 술집에 가서 접대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사회생활도 해야 했다. 손님을 접대하려고 술집에 가서 앉으면 옆에 접대부가 와서 딱 앉는단

다. 이제는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는 성도답게 자기 가족사진을 꺼내서 보여준다. 그러면 "여기 어딘데 뭐하려고 이런 것 왜 보여줘요? 기분 나쁘게" 그런단다. 내가 지금 사는 이때는 나의 남은 때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이방인의 뜻대로 살던 그 지난 때와는 전혀 다르게 새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직장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도록 그런 술집에서 거래처 손님들을 접대하지 않아도 되도록 훨씬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로 승진이 되어가게 되더라.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무슨 말씀인가? 이제 주님을 뵈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라는 말씀이다. 주님을 뵈기 전에 우리 인생의 짐도 정리하고 우리 인간사회

문제도 정리하고 우리가 벌려 놓았던 것 정리하고 우리 자신을 정리해야 하는 때이다. 지나간 때처럼 낫 놓고 살다가 털커덕 우리 주님 앞에 빈손으로 설수는 없는 것이다.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이 남은 때는 다 각각 주님을 뵈기 준비를 하는 마지막 기회로 주어질 Grace period이다.

생각해보면 아직 우리가 더 살 인생이 남아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 Grace period를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우리의 이 남은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날들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직 한번뿐인 인생, 아니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Grace Period 인생의 후반전까지 끝나는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속절없는 세상에 도취되어있는 것 아닌가?

푸 / 른 / 초 / 장

정정식 목사
(하와이 한미장로교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난 뒤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두 사람을 언급하며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상실한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잘 살린 두 사람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가 엘리야 시대에 시돈 땅 사르밧에 살았던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는 흉년으로 모든 먹을 양식이 떨어던 상황에서 계속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족함을 누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칭찬한 이 과부! 과연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1.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릇 시냇가에서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것이 왜 굳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굳이 그 과부에게로 보냈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안전한 곳이나, 풍족함이 넘치는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곧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나라든지,

물이 많은 곳과 곡식이 넉넉한 곳에 보내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오히려 가장 열악한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시돈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으로서 바알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도 마찬가지로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다 탈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르밧 과부도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약점이 많은 시돈의 사르밧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베드로전서 2:9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

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를 말해 줍니다. 곧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목적은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증거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왜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에 갔는지, 왜 그를 돌보는 사람이 과부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돈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던 바알을 믿는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면 결국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흉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알에 비해 하나님이 풍요를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분명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엘리야를 시돈에 보내신 것이고, 그곳에서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특히 우상숭배가 가득한 시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그 과부를 통하여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영광받으시기 원하고, 그 일을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돈처럼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음을 증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과부가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이 아닌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

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르밧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진 거리가 아닙니다. 약 100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이 거리는 차로 2-3시간 거리 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라면 넉넉하게 잡아 한 주가 채 안 걸릴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할 때 과부는

자식과 함께 한 번 정도 떡을 만들어 먹을 정도의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사르밧을 향해 출발했을 때에도 이 과부는 그다지 많은 곡식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포 엘리야를 섬기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분명 남을 섬길만한 형편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겠다고 합니다. 왜 입니까?

또 엘리야가 와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분명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난 뒤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한테 이

런 압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야는 떡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만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과부는 그 순간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상황이 되면 반발하거나 반항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과부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환경과 조건은 남들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결국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까지 받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순간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들할 수 없고, 때로는 앞이 짙은 것 같고,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셔서 이 사르밧 과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 것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7장 8-16절)

<초교파>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제1기 세미나

포럼의 취지

- 4차원 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모임
- 시대적, 현실적 요구를 4차원영성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모임
- 4차원 영성을 성도들의 실천신앙으로 확립코져 하는모임
- 영적합의 원리인 4차원 영성을 통한 창조적 리더십 발휘
- 4차원 영성을 통한 개인적, 공동체적 변화의 기적체험

포럼의 활동

- 영산 조용기목사의 4차원 영성 강의
- 국내외 저명인사 초청강연 및 세미나
- 교육교재 및 서적, 연구집 발간
- 지역별 / 전문별 Net-Work 형성
- 1사 1교회 자매 결연
-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과 연계하여 국제 활동
- 4차원 영성 상호회 가입



일 시: 2013년 10월 5일(토) 오전 8시~12시(4시간)
 장 소: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1층 세미나실
 자격(참석):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 장로권사, 집사
 참 가 비: 30불(식사+교재포함)
 선착순 신청자한하여 참석가능함, 40명

[문 의]
 회 장 석종규 목사 714-318-9528
 수석부회장 최명상 목사 323-317-3749

주최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AB1266 법안 폐지위해 서명운동 전개 호소

AB1266 법안(Co-Ed Bathroom Bill)이란?

AB1266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혼란은 곧 사회의 성범죄뿐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경제면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부도덕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악한 법안이 많아질수록 이보다 더 사악한 법안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명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의 영혼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악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방관하지않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방관하는 것도 죄"라고 하더군요.

방관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간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모든 운동종목을 남녀 구분 없이 함께 할 수 있으며 (예: 레슬링, 권투, Football 등),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장을 남녀 공용으로 서로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

AB1266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정체성의 혼돈은 물론이거니와 늘어나는 학교 안에서의 성폭행, 그로 인한 십대들의 늘어남 정신질환, 심리적 혹은 육체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 원치 않는 임신과 늘어

남가주공립교 남녀학생들의 각종운동,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공동사용 허가 청소년 정체체성 혼돈, 교내 성폭행, 정신적&육체적 질환, 임신, 낙태 등 우려

락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주민들의 온라인(Online) 반대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8월 초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에 의하여 통과되었습니다.

나는 낙태 등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비인간적인 일들이 바로 유치원생(K)들부터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런 사악한 일들은 학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가정, 사회, 문화, 국가 속으로 번져갈 것이라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십대들의 성적

법안폐지 서명 방법

SB48의 법안 서명 때와 동일합니다. TVNEXT.org에 가서서 먼저 1)서명하는 방법을 자세히 읽으시고 2)서명하시고(꼭 설명에 나온대로 따라주세요) 3)주위의 많은 분들과 교회에 알려주세요. 4)서명운동을 도우실 분은 TVN-EXT.ORG로 연락주세요.

절히 바랍니다. 서명하는 시간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과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된 길인지 몰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AB1266 폐지 서명운동에 여러분께서 꼭 참여하여 주세요. 이 귀한 일에 여러분의 동역을 요청합니다!

필라교협 복음화대회 위해 연속 기도회 대회강사 이종식 목사, 간증자 전기현 박사

대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동배 목사)는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에서 개최되는 필라복음화 대회를 앞두고 연속적인 기도회를 갖고 있다.

협산하 목회자와 사모와 제직들이 모인 가운데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선훈 목사 사제로 조병우 목사(등대감리교회 담임) 기도회 이어 김창만 목사(은누리순복음교회)가 빌립보서 4장 7-11절을 본문으로 "오순절 기도운동의 재현"을 역설했다.

이러 함식 기도 후 △간증(전기현 박사)을 위해, 임관호 목사(열린장로교회 담임) △강사 이종식 목사를 위해, 이대우 목사(필라한빛성결교회담임)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김영천 목사(한마음믿음교회)가 기도한 후 박동배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번 복음화대회 강사 이종식 목사(뉴욕베이스타드장로교회 담임)는 미국 생활의 체현적인 믿음을 통해 이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게 된다. 또 간증자 전기현 박사는 신앙의 위대한 실상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라교협은 교계는 물론 필라동포 누구나 참석해서 도전과 위로와 용기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올림선교합창단 정기연주회 앞두고 단원모집 찬양으로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돌려

찬양과 선교, 음악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올림선교합창단(단장 강천순 권사, 총지휘 이우진 권사)이 제 7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합창단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올림선교합창단은 오는 11월 10일(주) 오후 6시30분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릴 제 7회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본 연주회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LA 올림픽 가에 소재한 LAPD를 돕고 선교사와 리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



올림선교합창단 총지휘 이우진 권사

게 된다. 그동안 올림선교합창단은 음악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질환을

위한 치유 및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올림실버합창단을 통해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노부모들에게 소속감과 기쁨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다.

이우진 총지휘자는 "올림선교합창단원들의 특징은 모두가 프로들이 아니라 아마추어들이 모여 함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소개하며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은 올림선교합창단의 단원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올림선교 합창단의 시작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설립된(설립자 이우진 권사) 올림선교합창단은 작은 교회 돕기는 물론 남가주교계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시니어들을 위해 올림실버합창단을 창단, 어르신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본 합창단 강천순 단장은 "본 합창단을 통해 선교와 음악치유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원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13)663-5183 또는 emchoir@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저희 교회 제자훈련반에서 배울 때 지도하시는 목사님은 아침에 가시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라고 하는데 아침은 일어나서 직장에 가기 바쁜데 꼭 아침에 성경묵상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성경묵상의 습관이 왜 중요하나요?

A: 성경읽기와 묵상은 하루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 바쁘면 오후나 저녁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제자훈련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침이 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승리하면 하루 전체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어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허드슨 테일러란 선교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테일러 선교사는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을 조율하는 일부터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읽기와 묵상입니다. 그러면

말씀묵상으로 하루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말씀이 나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내 인생은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옛날 수도원 수도사들의 실례를 보면 그들은 영적훈련을 위해 오전 4시에 일어나서 오전 9시까지 오로지 성경읽기와 묵상, 기도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묵상하는 기술을 잃어버렸습니다. 깊은 영성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조금하고 알파한 묵상은 우리의 영성을 가뭄게 합니다.

우리는 양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주로 기록된 말씀 즉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읽기와 묵상을 통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첫째,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가슴에 꼭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어떤 특정한 사상이 뇌에 자리잡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책이나 좋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우리 마음 밭에 이런 것들이 씨앗으로 뿌려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 밭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씨앗으로 뿌려집니다. 존 파이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내 마음에 불을 지르고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기는 한구절 레마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해보라. 고요한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다. 인생의 승리는 결국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느냐에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성경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갈등 난 우리에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염려와 초조와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의 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울한 우리의 마음에 평온함을 가져다줍니다. 셋째, 말씀 묵상은 바른 길을 가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목적지를 정해주고 어두운 길을 갈 때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 말씀묵상은 바른 가치관을 형성케 하고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옳지 못한 길에서 멈추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합니다.

현대 정보화시대의 특징은 너무 바쁘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음악도 템포가 빨라져 도저히 그 가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것은 우리를 조금하게 만들고 바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실만한 물가로 가야합니다. 그곳이 바로 성경읽기와 묵상입니다.

Silver 선교교회

(노인교회)



- ▶ 시간: 주일 오후 3시, 금요일 오전 10시
★★★ 예배 후 만찬
- ▶ 장소: 989 S. Dewey Ave., L.A., CA 90006
만리장성 (萬里長城) (213)384-1119
(Olympic + Dewey)
- ▶ 문의: Silver 선교교회 (310)710-7734
Silver 경로효친선교회 (310)452-1729

상구 성구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잠언 20장 29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잠언 16장 31절)

제 14회 창단 리주년 기념 재미기독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2013년 9월 22일 주일 7:30pm

월서연합감리교회

435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주 관 : 재미기독여성성경의회 / 주 최 : 재미기독여성합창단
주 권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 남가주음악가협회



단장: 정영순



지휘: 조한우



반주: 조혜정



Tenor: 양동석



특별출연



극동성가단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고론탈로(GORONTALESE)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인도네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게 여러 민족들의 문화가 존재하며, 3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인종 집단들이 이 나라에 살고 있다. 인구가 거의 백만에 가까운 고론탈로족은 술라웨시(Sulawesi) 북부 지방에 사는 세 가지 주요 종족 집단 중 하나다. 원래 산에서 살던 고론탈로 사람들은 현재는 술라웨

야지역에 여러 촌락을 형성해 흩어져 살고 있기도 하며, 특별히 고론탈로 지역의 도시에 거주하기도 한다.

술라웨시는 필리핀 남부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큰 게 모양을 한 이 섬은 주로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산산추가 특징적이다. 열대우림 또한 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이며 작은 왕국들이 일어나고 멸망하는 역사가 바로 이 지역의 역사이다. 작은 왕국들은 전쟁이 나면 더 크고 더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기 위해 종종 서로 연합하곤 했다. 이 지역에는 원래 토라자(Toradja)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삶의 모습

고론탈로족이 사는 지역은 동쪽으로 미나도(Minado)섬의 미나하산(Minahasan) 지역에 인접해 있다. 미나하산은 네덜란드의 식민지화와 기독교 교육에 크게 영향을 받은 지역이며, 그 결과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론탈로족은 여전히 대부분 복음화 되지 않고 독실한 무슬림으로 남아있다. 이들 두 집단 사이에는 많은 편견의 장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론탈로족 현지인 교회는 없으며, 현지 크리스천들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론탈로족 무슬림에게 다가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쌀, 옥수수 그리고 사교야자열매는 고론탈로족에게 중요한 식품이다. 고구마와 기장은 제2의 곡물이며 코코넛은 상업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그물과 땃 그리고 작살은 호

수에서 고기를 낚는데 사용된다. 라탄(rattan, 야자수의 일종)과 다마르(damar, 목재용으로 키우는 나무)는 팔기 위해 모은다. 소는 일반적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사용되며, 말은 교통수단으로 활용된다.

인도네시아에는 땅을 갖지 못한 8백만명 이상의 농부들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떠나 보다 덜 개발된 섬으로 이주할 의사를 가진 농부들에게 무상으로 땅과 집을 제공하고 다른 지원도 하고 있다.

고론탈로족 사회는 부계사회로 결혼은 무슬림 형식을 따르며 중매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중매인은 신랑을 대신해 신부 값을 협상할 책임을 갖게 되며 신부의 값은 여자의 사회적 신분에 의해 결정된다. 고종사촌 간의 결혼을 선호하는 하나, 이종사촌 간에 결혼하

는 경우도 있다. 남자가 일단 결혼하면, 부부는 일반적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신부의 어머니와 함께 산다. 그 후에 부부는 자신들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부모를 떠난다. 부부는 각자 자신의 재산을 따로 소유하며 오직 결혼 후 얻은 땅만 공동재산이 된다.

신앙

이슬람은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우세한 종교로 인도네시아 인구 중 거의 85%가 이슬람교도다. 힌두교는 2%에 불과하며, 개신교는 약 8%이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불교-도교적 가르침을 따르기도 한다. 정령숭배(Animism)는 살아있지 않은 사물도 영을 갖고 있다는 믿음인데 외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부족들이 믿고 있다. 비록 종교 의식과 관습에는 여러 종교가 혼합돼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모

든 고론탈로족은 수니파 무슬림들이라 할 수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인도네시아어는 학교에서 가르치며 도시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론탈로족, 특별히 여성들은 오직 고론탈로어만 사용하는데 문자가 없다. 현재 고론탈로어로 오디오 자료 뿐 아니라 성경번역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독교 자료들이 완성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종교적 자유를 갖고 있긴 하지만 거대한 무슬림 집단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고론탈로족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10년간 미국 예배 참석률 감소세

지난 10년간 주일예배를 가지 않는 미국인들이 늘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는 미국인의 연간 예배 참석률을 분석한 결과 주일예배를 거의 가지 않거나 아예 가지 않는다는 비율이 2003년 25%에서 2013년 29%로 증가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도 2003년 39%에서 37%로 소폭 줄었다.



퓨 리서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예배에 갔다고 말한 것과 예배 참석 횟수는 다를 수 있다"며 실제 예배 참석률이 더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실제 행동을 부풀려 말한다는 연구 결과에 바탕한 추정이다.

사람들은 왜 예배에 가지 않을까. 퓨 리서치는 지난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인생에서 종교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점차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37%는 설교에 동의하지 않거나 예배 참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24%는 일이나 여가활동 등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예배에 못 간다고 했다. 건강 약화나 교통 불편 등 현실적인 이유를 예배 불참의 원인으로 꼽은 사람은 24%였다.

예배 참석률 감소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미국 교계의 운동도 활발하다. 교회 2만여 곳은 9월 둘째 주 내내 '내셔널 백 투 처치 선데이(National Back to Church Sunday-NBCS)' 캠페인을 벌였다. 2009년 시작된 캠페인은 온라인 등을 통해 비신자에게 초청장을 발송해 예배 참석을 독려하는 전도 활동이다. NBCS 본부는 "올해 100만명이 예배 초청에 응했다"고 전했다.

중국삼자교회 5년간 240만명 증가

지난 5년 동안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늘어난 기독교인만 240만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기독교대표회

의(중기회)는 지난 8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제도권의 법적 보호를 받는 삼자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교인이 24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중기회는 삼자교회와 중국기독교협회가 주축이 된 중국 내 최고 권위의 기독교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공개된 세례교인 수는 공식적인 수치여서 가정교회 등을 포함한 실제 기독교 인구는 훨씬 더 많다는 게 교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중국에서 가정교회나 지하교회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5년간 5195곳에 교회가 새로 세워졌고, 목사 1057명과 부목사 482명, 장로 1443명이 새로 임직됐다. 같은 기간 신학대학교는 3곳이 설립됐다. 중국 내 신학대학은 21개로 늘었다. 신학대학 교수도 292명이 증가했고 신학대학 졸업생은 4369명이었다.

성장의 원동력은 뭘까. 베이징의 민족대학 숭경신 교수는 인민일보 자매 영자지인 글로벌타임스와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현상은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에 사람들이 영적 위안을 얻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적 성장에 걸맞은 책임도 요구됐다. 국가종교사무국 장젠웅 부국장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어깨에 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글로벌타임스가 전했다.

이집트 군경, 이슬람세력 소탕 56명 체포

이집트군과 경찰이 최근 한 달간 남부 민야 주 다르자 마을에서 극단 이슬람 세력에 대한 합동 소탕 작전을 전개했다고 일간 알아함람이 16일 보도했다. 이집트 보안 당국은 최근 이 지역의 교회에 불을 지르고 테러를 가한 혐의로 지금까지 이슬람주의자 56명을 체포하고 각종 무기류를 압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군경은 또 작전의 하나로 용의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거나 최루탄 가스를 발사하기도 했다. 군경의 작

전 기간 다르자 마을과 연결된 32곳의 진입로는 전부 봉쇄됐다. 한낮에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 마을에는 주민이 약 12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보안 소식통은 말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몇 주간 콥트 교회 3곳이 이슬람 세력의 공격을 받았고 신자들의 집과 상점 수십 채가 불에 탔다. 콥트 교인 2명도 살해됐다. 콥트교는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로, 이집트 전체 인구 8천500만 명의 약 10%가 콥트교를 믿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지난 2011년 시민혁명으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퇴진하고 나서 다수인 이슬람교도와 소수 콥트교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월 군부에 축출된 무르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강제해산 당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속출하자 보복 차원에서 콥트교도와 교회들을 공격해 종교 분쟁으로도 비화하고 있다.

영국대학 '이슬람 베일' 금지규정 철회

무슬림 여학생의 이슬람 베일 착용을 금지해 논란에 휘말렸던 영국 버밍엄의 대학이 비판 여론에 밀려 금지 규정을 철회했다.



14일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에 따르면 버밍엄 메트로폴리탄 칼리지는 교내 이슬람 베일 금지 규정에 대한 반발이 온라인 청원운동과 시위 움직임으로까지 번지자 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복장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9천건에 이르고 학생들의 시위까지 예고되자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안에서 누구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의상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입 및 대학과정을 운영하는 이 학교는 복장규제로 학업과 무관한 논란이 고조돼 관련 규정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버밍엄 메트로폴리탄 칼리지는 앞서 교내 안전확보를 명목으로 재학생과 교직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얼굴을 가리는 니카브로 불리는 이슬람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 사실이 공개돼 무슬림 사회와 갈등을 빚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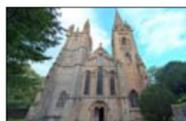
학교 측은 무슬림 여성이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하

는 베일뿐만 아니라 모자와 후드 등 위협인물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모자류 착용을 규제하는 안전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종교 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영국 무슬림협회가 보안 조치를 가장한 명백한 종교 차별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한 가운데 베일을 착용한 무슬림 여성의 증언을 허용한 법원의 결정까지 나오면서 학교가 백기를 들게 된 셈이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학교 측의 규정 철회에도 정치권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학교의 복장 규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학교 측을 편드는 발언을 한 것이 빌미를 제공했다. 하지만 자유민주당 당수인 닉 클레크 부총리는 "문제가 된 이슬람 베일 금지 규정은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없는 불쾌한 일"이라고 비판해 총리와의 견해를 드러냈다.

영국 웨일스 성공회 여성 주교 허용

보수적인 영국 웨일스 성공회에서 여성 주교가 나올 수 있게 됐다. 15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웨일스 성공회는 최근 종교회의의 투표를 통해서 여성을 주교로 임명할 수 있도록 교회법을 개정했다.



평신도와 성직자, 주교 144명이 투표해 % 이상의 찬성으로 새 교회법이 통과됐다. 평신도 투표에서는 찬성 57표, 반대 14표, 성직자 투표에서는 찬성 37표, 반대 10표가 나왔다. 주교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웨일스 성공회는 5년 전인 2008년에도 여성 주교 허용 투표를 벌였으나 찬성표가 3표 모자라 부결됐다. 배리 모건 웨일스 대주교는 "교회가 여성을 부제 등으로 이미 임명하는 상황에서 주교만 될 수 없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된다"면서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웨일스 성공회가 규정을 바꿈에 따라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교회에서만 여성 주교가 허용되지 않는다.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성공회에서는 이미 여성도 주교로 활동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도 여성 주교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직 여성이 주교가 된 사례는 없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 기간 : 2013년 10월 17일(목) ~ 24일(목)

| 시간 : 오후 7:30, 새벽 5:30, 오전 10: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목사)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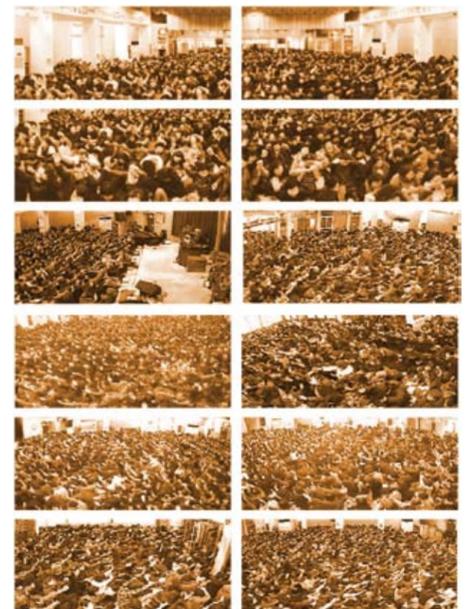
| 문의 : (213)382-1450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본당, 부속건물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56. 창조론의 기초(7) - 화석이 말해주고 있는 대격변

노아시대의 대홍수는 격변이었고 전 지구적이었다. 노아가 겪었던 그 홍수가 지역적인 대홍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다. 창세기 7:19-24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물이 땅에 더욱 잠일하며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심 오 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도니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일백 오십일을 땅에 잠일하였더라.”

이 노아홍수는 하나님께서 죄지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적용시켜버린 무서운 심판사건이었다. 사람들은 죄의 대가인 멸망을 받은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노아(창6:8)와 그의 직계가족들만 각 종류(코로 숨을 쉬는 동물들을 말함)의 대표들과 함께 방주를 통해 살아남았을 뿐이다.

끔찍한 순간을 보여주는 화석들

화석이 된 생물들은 죽은 다음에 수백만 년 동안 서서히 매장되어 화석화 된 것이라고 배웠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순간을 보여주는 화석들이 많다. 유명한 시조새 화석을 보면 목과 꼬리 깃털을 활처럼 뒤로 젖힌 채로 화석이 되었는데 물에 빠져 질식사하고 있는 끔찍한 모습으로 보인다.

조개화석들은 마치 살아 있는 조개들이 죽지 않으려고 입을 굳게 다문 모습으로 발견된다. 살아 있는 조개가 서서히 죽어가면 입

을 벌리고, 해변에 죽어 있는 조개 껍질은 언제나 낫지만, 조개 화석들은 언제나 살아 있는 듯 입을 다물고 있다. 또, 많은 공룡화석들은 찢겨져 있지만 그 시체를 다른 동물들이 뜯어 먹은 흔적은 없다. 엄청난 에너지가 짧은 시간에 동원된 격변의 흔적뿐이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

일반과학자들도 화석화 과정의 대격변 인정 “지층의 무질서” 는 진화역사의 거짓 보여줘



공룡과 물고기
피로움에 몸을 비틀고 있는 이 공룡과 물고기 화석은 노아홍수의 격변적인 심판의 단면

아 먹고 있는 화석들도 있다. 잡아 먹는 순간에 모래나 진흙에 덮인 것이다. 만약 화석이 형성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이런 순간을 보여주는 물고기화석은 존재할 수 없다. 어떤 물고기화석은 그 물고기 배 속에 작은 물고기가 생생한 모습으로 들어있다. 통째로 삼켜진 작은 물고기가 채 소화되기 전에 그 큰 물고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 엄청난 양의 토사에 갑자기 묻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화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생물들이 아주 끔찍하게 격변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식지가 다른 동물들이 섞여 있는 화석들

서식지가 다른 여러 생물들이 같은 장소에 함께 묻혀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장소를 화석 무덤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짝물에 사는 물고기와 땅 위 높은 곳에 사는 동물들이 함께 발견되고, 약어가 깊은 바다 속에서만 사는 동물과 그리고 사막에 사는 동물과 극지방에서 사는 동물들이 함께 발견되는 식이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일어나는 과정들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고 대격변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세상 과학자들도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엄청난 양의 빠른 유속의 물이 흐르면서 침전물이 만들어지는 격변적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인정하여 교과서가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

화석과 서식지

화석을 공부할 때 “시상화석”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시상화석이란 그 생명체가 살았던 환경을 짐작해볼 수 있는 단서를 보여주는 화석들이다. 어

수 이전의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한대나 열대가 없고 사막이나 빙하가 없이 전세계가 균일하게 생명체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을 것이다.

화석들은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화석무덤처럼 가끔은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함께 묻히게 된다. 진화적으로 수백 혹은 수천만 년 떨어져 있는 생명체들이 함께 발견되기도 한다. 진화론적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 현상이 거의 모든 곳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지층의 무질서”란 단어가 만들어졌다. “지층의 무질서”는 진화 역사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다.

거의 모든 화석들은 육지에

화석의 95%는 조개화석들이다. 또 발견된 조개화석의 숫자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 바다 속에 사는 그 많은 조개들이 어떤 이유로 육지지층에서 발견되는 것일까? 바닷물들이 육지로 밀려들어오면서 육지를 부셔서리

는 과정에서 생성된 흙과 조개들이 함께 살아 있을 때 묻힌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그려보면 그 당시의 무시무시한 격변은 바다가 육지보다 더 높아진, 그래서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쓰나미가 지구 곳곳에서 발생했었을 것인 것을 상상해볼 수 있다. 이 사건이 바로 지구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전지구적인 격변, 지구가 멸망된 노아홍수 심판사건, 히브리어로 말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아홍수가 시작되던 날

쓰나미의 속도는 제트비행기 속도와 거의 비슷한 1000km/h 정도다. 철레에서 일어난 쓰나미가 22시간 만에 일본에 도착했었다. 만약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서 쓰나미가 일어난다면 온 지구는 단 12시간 만에 쓰나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노아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성경은 “모든(all) 깊은의 샘들이 터지고”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규모가 크고 강력한 쓰나미가 지구 곳곳에서 발생했었음에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지구는 단 하루 만에 거의 초토화 되고 말았을 것이다(베포후3:6).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종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두 개의 사건속에 숨겨진 비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307명을 태운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착륙도중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꼬리와 날개 부분이 떨어져나가고 동체 대부분이 불탄 아찔한 상황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3명의 사상자 외에 추가 희생자가 없었던 것은 기적에 가깝다는 평가다.

항공기 사고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의 규모는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얼마나 빨리 대피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승무원들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매년 179시간의 강도 높은 안전훈련과 90초 내에 승객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90초 물’의 행동요령을 교육받아왔다.

연세 폭발할지 모르는 사고 여객기 안에서 아시아나 승무원들은 다리를 다친 12세 어린이를 업고 500m를 달리는가 하면 다친 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한명이라도 더 구조하려 안간힘을 쏟았다.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한 승객은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비행기를 빠져 나갈 때까지 승무원들이 기내에 남아있었다. 승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직후 비행기가 폭발하고 화염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승무원들의 가장 큰 책임은 비상상황에서 사고 발생을 대비하는 것이다. 둘째가 기내에서의 안전 활동이고 ‘기내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그 다음이다.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으로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여 최악의 위기를 최소한의 인명피해로 돌려놓았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잘 극복한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와는 반대로 충남 태안군에서는 사설해병대 훈련 캠프에 참여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실종 하루 만에 전원 생존 채 발견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푸경을 얻어보니 캠프를 운영한 곳은 청소년 수련 시설과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재하도급 기관이었고 현장에 있던 교관 2명도 인명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임직이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둔벽이에만 매달린 사설업체의 무책임한 ‘총체적 무실’이 여실이 드러난 셈이다.

사고 생존자인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학생 90명을 통솔하는 교관은 앞 뒤에 단 2명뿐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학생들이 물에 빠지자 교관들이 당황하여 “친구들을 구하지 않고 호각만 불어대면서 빨리 나오라고 재촉했다”고 전했다. 전문 교관도 인술 교사도 없는 상황에서 어른들의 무책임함이 어처구니없는 참사를 불러왔다.

책임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종은나무성품학교정의)’이다. 엄청난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느냐 아니면 더 큰 비극을 낳느냐는 책임감의 성품으로 달라진다.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는 자칫 대형 참사를 불러올만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승무원들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덕분에 그나마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하고 조심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해병대 캠프 사건은 책임감의 부재가 불러온 참담한 비극의 단면이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Ulrich Beck)은 그의 저서에서 현대를 ‘위험사회’라고 정의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위험요소도 증가하여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예측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사회라는 의미이다. 이런 현대 사회에서 삶의 질과 행복의 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느냐에 달렸다. 좋은 성품이란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성품 좋은 개인이야말로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국가에서 주변을 살리고 위기를 돌파하는 핵심동력이 된다. 사건 속에 숨겨진 비밀의 열쇠는 바로 좋은 성품이다. 책임감이야말로 최악의 위험과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된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여기에

《검은 것이 아름답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는 이동관 선교사의 이야기. 초년병 선교사의 좌충우돌하던 경험과 아프리카의 실제 현장을 맞닥뜨리며 가졌던 소박한 고민들을 담았다. 한 젊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부끄러움도 솔직히 고백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꾸밈없이 풀어낸 진솔하고 순수한 고백의 선교 이야기다. 그리고 ‘가치있는 인생을 위한 도전’이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책이다.
* 이동관, 박형란의 케냐 사랑 이야기 www.kensarang.com
이동관 지음 / 264면 / 12,000원

《너와 함께 가라》
캘리포니아 Lake House(기도의 집) 대표로 있는 김정숙 목사의 간증집. 저자는 캘리포니아 호수 엘시노어에서 지치고 목이 말라 기도의 두레박으로 생수를 퍼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따뜻한 기도를 섬기고 있다.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이 책에는 잔잔한 위로가 흐른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그 사랑으로 인해 건널 수 있었던 시간을 따뜻하게 풀어내었으며,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 당황하며 주님을 부를 때 손 잡아주시고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의 동행 하심의 여정을 담고 있다.
김정숙 지음 / 264면 / 12,000원

《성경 핵심 요절 2500》
‘거리 전도 대장’으로 유명한 정동제일교회 윤용구 권사의 호크마 시리즈II.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한 저자가 성경 핵심 요절 2500여 개를 신앙의 원리, 교회 생활, 생활 문제 해결, 영적 승리의 비결, 가족 신앙 5개 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으며 또 각 단원마다 소주제를 넣어 삶의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새 생명, 새 소망, 새 비전, 새 능력, 새 영감을 받아 만든 책으로 말씀 암송과 성경 이해에 유용한 책이다.
윤용구 지음 / 544면 / 20,000원 / 사륙판

《다니엘 전도법》
목회자라면 누구나 갈망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전도이다. 이 책은 24년의 목회 생활 동안 전도로 몸부림쳐 온 저자가 ‘다니엘 전도법’으로 교회를 부흥, 성장케 한 교회 개척 수가 및 전도법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이지만 때론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전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된다. 전도 문제로 목회와 신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적이며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추영춘 지음 / 264면 / 11,000원

《성경 요절 2500》

www.kumran.co.kr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Tel. 02-747-1004 **금란출판사**



목회서신

빛과 속음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예수님은 산상보훈 설교 중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마5:13-16)고 하셨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과 의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구원 받은 성도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책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에 대한 지적이며, 잘 감당하길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과 비전이기도 하다.

1. 빛의 역할 빛에는 2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째는 밝게 비추는 것이다. 주변과 사물을 밝게 비추어, 어두움이 풀리게 한다. 둘째는 드러나게 한다. 빛 앞에는 감추일 것이 없다.

하나님의 천지만물 창조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만드심(창1:3)이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시27:1)이시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요1:48:12)이시다. 우리 자체는 빛이 될 수 없다. 거울 같은 존재다. 거울이 빛을 발하려면 시커먼 죄로 먹칠된 우리 마음의 거울이 회개함으

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야 한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엡5:8-9)의 삶의 열매,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비진리와 거짓교훈의 혼돈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등대, 밝은 빛이 되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엡6:12)을 몰아내고 진리와 복음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는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다.

2. 소금의 역할 소금에는 3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째, 모든 음식에 간하여 맛을 내게 한다. 신 맛과 쓴 맛, 매운 맛과 단 맛 등 다른 맛은 여러 가지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짠 맛을 내는 것은 소금밖에 없다. 둘째, '소금은 곧 생명'이다. 다른 영양분은 해당 영양분이 모자라도 생존엔 큰 지장이 없지만 인체에 소금이 모자라면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장거리 행군의 군인, 마라톤 선수, 광부 등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꼭 소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셋째, 썩는 것을 막아주는 부패방지 기능이다. 생선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소금을 뿌리는 것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갔다오면 소금물로 양치질을 하게 하는 것도 소금의 부패방지 기능과 관계된 것이다. 소금에는 2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뿌려져야 한다. 소금은 묻혀있으면 안 된다. 둘째는 녹아야 한다. 소금은 녹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부패방지와 맛을 내기 위하여 뿌려져 녹아져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는 성도는 모여 있지 말고 흩어져서 자존심, 체면, 고집, 자기 의를 다 버리고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화해와 화평을 이루게 하고, 부정 부패로 썩어져 가는 곳에 가서 정의와 정직한 사회를 구현하고, 고난과 문제 가운데 절망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다.

3. 빛과 속음 주님께서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간곡하게 권면하셨지만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이단사설의 비진리와 거짓교훈의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화해자가 아닌 분쟁자로, 불신자보다 더 심한 불의한 부정부패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성도가 풀어야 할 큰 과제이다. 그래서 흑자는 현대 교회와 성도

가 '빛과 소금'이 아닌 '빛과 속음'으로 변질되었다고 빗대어 말하고 있다. 사람의 빛(롬13:8), 복음의 빛(롬1:14), 기도의 빛(삼상12:23) 등은 지지 않고, 세상 빛만 잔뜩 쳐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파산이 되어 이슬람의 사원(Mosque)과 불당(佛堂)으로 전락하는 실정이나, '빛'이 아니라 '빛'이 되었다는 것이고, 옛날에는 장로, 권사가 사회에서 인정과 존경 받았던 귀한 신분이었지만 작금에는 거짓말과 위선의 사기꾼으로 전락하여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남을 속이고 있어, 현대교인과 교회를 '소금'이 아닌 '속음'의 무리와 단체라고 빗대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낮 뜨겁고 부끄러운 노릇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다 되시길 축원한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제11차 미주지역총회 및 목사안수식에서 한국 총회장 나세웅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성장하는 총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제11차 미주지역총회 및 목사안수식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제11차 미주지역총회 및 목사안수식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남가주 빛나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성장하는 총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서 미주지역총회 증경 총회장인 박용덕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했다. 개회예배에 이어 제2부 순서로는 목사안수식이 열렸다. 목사 안수식은 미주지역총회장인 최한오 목사

의 집례로 진행됐으며 캐나다 서부 지방회장인 이남규 목사의 기도, 안수자 서약, 안수례로 이어졌다. 안수자들을 위해 교단 총무 조일규 목사와 김부영 목사가 각각 권면했으며, 목영서 목사와 김순갑 목사가 각각 축사를 하고, 이날 안수 받은 이종욱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송영진 목사(캐나다서부지방회, 임마누엘교회) △부총회장: 장동신 목사(미국 동부지방회, 오늘의 교회) △총무: 양승민 목사(캐나다 동부지방회, 토론토영양교회) △서기: 강양규 목사(미국 서부지방회, 남가주새언약교회) △회계: 김영일 목사(미국 서부지방회, 섬김과 나눔교회).

자세한 문외는 강양규 목사(213-434-1083, yangkyu0531@hanmail.net)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미주지역총회)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제32회 남가주성가대합창제에서 이날 참가한 8개 교회 성가대와 3개 합창단 등 11개 팀이 오렌지한인교회 이종현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남가주한인교음협 주최 제32회 남가주성가대합창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조성환 목사) 제32회 남가주성가대합창제가 15일 저녁 7시30분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조성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민자의 삶이라는 또 하나의 인생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하라하신 신앙공동체, 교회에서

음악과 삶의 통로를 통해 끊임없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 교회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하며 "찬양대원들이 먼저 기도, 그리고 삶으로 또 그 위에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알리는 능력의 찬양되기

를 기도하며 교회의 덕이 되는 찬양대원이 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조성환 목사와 서미령 집사의 사회로 시작된 합창제는 노창수 목사가 개회기도를 했으며, 베데스다대학 합창단(지휘 랜디 김 교수), 미주서부장로교회(지휘 류지원), 글로벌선교교회(지휘 이미경), 주남세운교회(지휘 서병호), Y's Singers(지휘 김재숙), 선한목사장로교회(지휘 김원재), 감사한인교회(지휘 김명옥), 오렌지한인교회(지휘 이종현), LA사랑의교회(지휘 이일규), 미주여성교향(지휘 오성애), 남가주사랑의교회(지휘 조성환) 등 총 11개 팀이 출연했다.

또한 찬양사역자 허훈 형제가 특송을 불렀다. 이날 찬양제는 이종현 오렌지한인교회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I Love You, Lord'를 부른 후 고대형 목사(선한목사장로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밀알선교단 최다니엘 등 66명 수상 대통령자원봉사상 및 에드로이스 의원봉사상 시상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 사랑의교실 자원봉사자들이 2013 대통령 자원봉사상 및 에드로이스 연방하원의원 봉사상을 수여 받았다.

14일 오전 11시30분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열린 2013 대통령자원봉사상 및 에드로이스 연방하원의원 봉사상 수여식에서 최다니엘 학생 등 56명이 대통령자원봉사상을, 케이트리 등 10명이 에드로이스 연방하원의원 봉사상을 수

여받은 등 총 66명이 자원봉사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2013 사랑의캠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가졌던 에세이 시상식은 크리스티나 등 3명이 최우수상을, 송의진 등 3명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영선 목사는 "이번에 대통령 자원봉사상과 연방하원의원 봉사상을 받게 돼 너무 감사하다. 밀알에서는 4년 전부터 봉사상을 제정해 실시하고 있다. 1년간 열심히 봉사를 한



남가주밀알선교단은 2013 대통령자원봉사상 및 에드로이스 연방하원의원 봉사상 수여식을 마친후 참가자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고 있다 학생 중에 수상자를 선정해서 시상하게 되는데 특별히 올해는 66명의 학생들이 대통령상과 연방하원의원상을 받게 됐다. 아마도 한인커

뮤니티 단체 중 가장 많은 상을 받게 된 것 같다. 밀알사랑의교실에는 300명 정도의 봉사자들이 매주 장애아동들을 위해 봉사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의 모범이 되는 상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영선 단장의 환영사로 시작했으며, 이역희 장로의 기도,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장이 'Loving and Serving the Least of Our Brothers'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이날 모인 장애아동들과 봉사자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이어서 2013 사랑의캠프 에세이 시상식을 열었으며 수상자인 크리스티나(LA 사랑의교실)와 김선영(LA 사랑의교실) 학생이 에세이를 낭독했다. 이날 행사는 이은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On Campus Courses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A Session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B Session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Aug 26-30(8월 26일-30일)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Korea

Nov 4-8 (11월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Los Angeles, CA

Sept 16-20 (9월 16일-20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Eddie Kim(김의원박사)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뉴저지한인목사회 친선체육대회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이병준 목사) 친선체육대회가 10월 21일(월) 오전 9시 뉴저지 뉴오브팩 공원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2세 목회자 양성 후원을 위해 마련됐다.

▲문의: (201)669-7528

'뉴욕시 한인사회 자폐프로젝트' 뉴욕 교회 모임

AUTISM SPEAKS 재단이 운영하는 '뉴욕시 한인사회 자폐프로젝트'를 위한 뉴욕 교회 모임이 9월 23일(월) 오후 1시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린다. 동 재단은 유년대학 내의 자폐 및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646)367-5336

KCBN 가을 프로그램 개편

뉴욕기독교방송 KCBN(사장 문석진 목사)이 가을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KCBN은 추수의 계절인 아름다운 가을을 맞아 영혼 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가을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시간이 변경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정취자들의 신정 찬양을 전하고 전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살림 오후의 데이트'(진행 문석진 목사): 수, 금 오전 11시40분-오후 12시40분, 중보기도 프로그램 △'소망의 기도'(진행 오영아): 화, 목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12시40분 △KCBN상당실(진행 조순재/오영아): 월-금, 오전 10시40분-11시 30분 △뉴스: 오후 12시40분-1시 △방송설교: 하나님의 진리등대/오전 7시-7시40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오전 9시10분-10시, 은혜의 동산/오후 1시 10분-2시

△KCBN매거진: 오전 10시-10시 40분 △KCBN안내: 오전 11시30분 △KCBN나눔터: 오후 1시로 각각 방송 시간이 변경된다.

또한 △KCBN 출발 새아침(진행 문석진 목사/오영아): 오전 8시부터 △아름다운 동행(진행 조순재): 오전 8시40분 △기뻐하며 감사하며(진행 임선숙): 월, 오전 11시40분 △다 찬양하여라(진행 오영아): 월, 오후 12시10분-12시40분으로 방송시간이 변경됐다.

신설 프로그램은 "1분기도"(월-금 오후 1시), "찬양가득 기쁨가득"(진행 황국명 목사, 매 목요일 오후 2-3시), "예수님의 친구들"(진행 박태보라,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2시30분-3시)"이 있다. KCBN은 특별히 주말 프로그램은 주중에 청취가 가능하며 주중 프로그램은 주말에 재방송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신규회원 5교회 가입·연회비 130달러 뉴욕교협 마지막 임실행위 안전 통과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 마지막 임실행위가 지난 17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렸다. 교협은 이날 할렐루야복음화대회 행사를 보고하고 신규 회원으로 5교회 가입을 허락했다.

회장 김종훈 목사는 "39회기 마지막까지 협력해준 회원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뉴욕교협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장경혜 목사(서기) 인도로 기도 박맹준 목사(협동총무), 말씀 이성현 목사(목회분과위원장), 광고 장경혜 목사,

축도 이병훈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성현 목사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고전10:31-3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실화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 마라도니 에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전했다. 두 번째는 거처는 자가 되지 말라며 갈렙과 바나바를 예로 들었다. 세 번째는 기쁨과 유익을 주는 자가 되라며 오셀을 소개했다. 이목사는 교협과 목회자들 모두가 멋있는 하나님의 기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회의는 김종훈 회장 사화로 최웅렬 목사의 개회기도 후 현영갑 총무가 할렐루야대회 보고를 했다. 대회 총수입 14만8천 달러, 지출 11만 달러로 보고했다.

안건은 총회에 내용을 회칙개정으로 △신규가입 교회는 독립교회일 시 세례교인 15인의 서명을 첨부

한다 △교협회원 연회비를 120달러에서 150달러로 한다(선교센터 회비 30달러)로 2개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회의는 이대연 장로 기도로 마쳤다. 이날 신규 가입이 통과된 교회는 신정 6개 교회 중 5개 교회인 율네이션스침례교회(김레이나드 목사), 햇불선교교회(하정민 목사, 독립), 리바이벌교회(장규준 목사, 독립), 뉴욕즐거운교회(김정숙 목사, 독립), 사랑의교회(강진식 목사, 나사렛성결) 등이다.

(유원정 기자)

KPCA뉴욕지역 노회들 부총회장 후보 잇따라 추대 9일 정기노회, 동북노회-이승재 목사, 뉴욕노회-김종훈 목사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호성기 목사) 뉴욕지역 노회들이 지난 9일부터 정기노회를 열고 2014년 정기총회 임후보할 부총회장 후보들을 선임했다.



이승재 목사



김종훈 목사

동북노회(노회장 최문병 목사)는 제 21회 정기노회에서 이승재 목사(뉴욕은혜교회 담임)를, 뉴욕노회(노회장 노성보 목사)는 제 49회 정기노회에서 김종훈 목사(뉴욕에일장로교회 담임)를 각각 추대했다. 김종훈 목사는 현재 뉴욕교협회장이기도 하다.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된 이들은 오랫동안 뉴욕교계에서 활동해왔으며 목회와 지도력 등 인정을 받고 있어 뉴욕지역 노회관계자들은 부총회장 후보 추대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교단 임원으로는

여러 차례 선출됐으나 부총회장 중직에 출마한 것은 오랜만이라는 정서다.

또 같은 지역 노회들의 잇따른 부총회장 후보 추대는 교단적으로도 정기총회의 큰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한편 동북노회는 엘리트장로교회 매각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을 조사 보고 후 사교교회로 처리하고 이종길 목사를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으며 노회결정에 불복할 경우 뉴욕주 해당기관에 엘리트교회 부동산에 대한 조사 의뢰를 하기로 결의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마지막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부흥회에서 김성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뉴욕병원선교회 추석맞이 효도잔치 성료 "한번도 끊김없이 지속...하나님의 은혜"

뉴욕병원선교회(대표 김영환 목사, 뉴욕효성교회 담임)가 주최하는 2013년 추석맞이 효도잔치가 롱아일랜드 한국요양원에서 지난 14일 열렸다. 14년 전부터 노인 병원 사역을 해오고 있는 김영환 목사는 어버이날과 추석에는 대규모 효도잔치를 열고 4월에는 워싱턴DC 벚꽃놀이, 연말연시에는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특별순서를 갖고 있다.



뉴욕병원선교회가 주최한 한국양로원 노인 추석잔치

사회로 김영환 목사부부 깜짝 인터뷰에 이어 아리랑살풀이, 태평무, 장고춤, 부채춤 등 한국무용과 테너 김영환 집사의 찬양, 지인식 목사부부의 노래가 이어졌다.

김영환 목사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만 한 번도 끊김없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 '영성의 밤' 및 퀸즈장로교회 부흥성회 김성길 목사, "복있는 사람", 교회론에 대해 설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준 박사) 영성의 밤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김성길 목사(수원 시온교회 담임)를 강사로 개최됐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퀸즈장로교회 수요 예배에서 신학생 찬양의 밤으로 열렸다.

이날 김성길 목사는 시편 1:1-6을 본문으로 "복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더불어 신학생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목사는 "복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라며 고 박윤선 박사의 일화를 소개했다. 김 목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소원하지만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복받기를 사모하는 마음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

시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계시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온갖 은혜와 복을 가지고 네 삶에 동참해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고 약속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복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순종"이라며 "복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길 목사는 13일부터 사흘간 퀸즈장로교회에서 추계부흥성회를 인도했다. 이틀간은 교회론 I과 II(엡5:22-32)로, 마지막 날에는 "기독교의 생명"(마5:13-16)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목사회 회장 이병준 목사 취임

뉴저지한인목사회는 지난 9일 뉴저지행복한교회(담임 이병준 목사)에서 신규 회장 이취임예배를 가졌다.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이병준 목사(사진)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목사회를 이끌겠다"며, "첫째, 목회자들이 더 함께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둘째,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목회정보교환, 영성계발 등에 치중하겠다. 셋째, 복음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섬기는 목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직전회장 이우용 목사(뉴저지중영교회 담임)에게는 공로패를 증정했다. 새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병준 목사(뉴저지 행복한교회) △부회장 박찬순 목사(임마누엘성결교회) △총무 권형덕 목사(참아름다운교회) △서기 장문성



목사(세동산장로교회) △협동총무 양부환 목사(참소망교회), 조영길 목사(뉴호프장로교회), 윤석기 목사(뉴저지영광감리교회), 김두화 목사(지구촌교회) △회계 이은혜 목사(순복음안디옥교회) △감사 박정희 목사(세계복음선교회).

한편 뉴저지목사회 첫번째 사업으로 10월 21일(월) 뉴 오버팩 공원에서 2세 목회자 양성 후원을 위한 목회자 친선 체육대회(축구, 배구, 족구)가 열린다. 교파별로 경기가 진행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담임목사 청빙공고

• 청빙 자격

1. 1958년 1월 이후 68년 12월 이전에 출생한(만 45세 이상 55세 이하) 분
2. 정규대학, 정규 신학대학 졸업자(M.Div 이상)
3. 이민 목회 5년 이상 사역하신 분
4. 영어, 한국어 능통한 분
5. 목사 안수 받은 지 3년 이상된 분
6.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 구비서류

1.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가족사진 첨부)
2.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3. 목사 안수 확인서 및 현재 소속 교단 확인서
4. 최근 6개월 내 설교 CD 2부
5. 영주권 또는 시민권 공증 사본
6. 추천서 1통

• 서류마감

2013년 10월 31일(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보내실 곳

The Little Flock Church
주소 : 69-38 47 Ave., Woodside, NY 11377
문의: 718-899-8309



The Little Flock Church

뉴욕 어린양 교회

OC교협 주최 영적대각성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엽 목사)가 주최하는 영적대각성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가 15일부터 17일까지 송용걸 목사(잠실 신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집회에 앞서 16일 오전 10시에 열린 목회자세미나에서 송용걸 목사는 이민목회 30년의 경험과 신천교회에서의 담임목회 경험을 살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OC지역 목회자들에게 도전 주는 메시지를 전했다.

송용걸 목사는 "20대 초반 삼일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 지금까지 오면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된 것밖에 없다"고 회상하며 "은퇴 후에는 은퇴연금이 나오는 만큼 경제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전도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교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누가복음 5장1-11절 말씀을 갖고 세미나를 인도한 송 목사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목회자이던 평신도이던 상관없이 버릴 것들을 버려야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



OC교협주최 목회자세미나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국에서 사역하다보면 가끔 밀려오는 것이 시가고 목회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다. 시가고에서 목회할 때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사역할 수 있었다. 이민목회 특성상 말겨진 양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친밀한 교제 속에 사역했다. 그러나 신천교회에서의 사역은 교인들이 많더니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렵다. 단지 주일설교 외에는 교인들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 삭막해지곤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송 목사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 그것으로 인해 베드로가 사람

(박준호 기자)



미주 두란노 세미나팀과 FBM이 공동 주관하는 '커플 멘토링 스쿨'에서 김정진 사모가 강의하고 있다

미주두란노 세미나팀 커플 멘토링 스쿨 '생의 주기' 주제로, 강사 김정진 사모

미주두란노 세미나팀과 FBM(가정을세우는사람들)이 공동 주관하는 '커플 멘토링 스쿨'이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두란노서원에서 '부부 행복공식'의 저자 금병달 목사와 김정진 사모 부부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개최됐다.

'생의 주기'라는 주제로 열린 오후 강의에서 강사로 나선 김정진 사모는 "인간이 출생에서 사망할 때까지 삶의 여정을 이해하면 성공적 삶을 살 수 있다"고 전했다.

금 사모는 "패밀리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좋은 회사가 잘나가듯 패밀리스ystem 중 한사람의 변화가 온가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신혼부부는 3-5년 길게는 7년 안에 패밀리스ystem을 만들게 되는데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건강한 패밀리스ystem을 갖추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멘토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독립할 때까지의 과정, 그리고 노년기 등을 설명하며 건강한 젊은 부부, 예비부부가 되는

낯은 어부가 된 것처럼 베드로의 체험이 주의 종들의 체험이 되길 바란다. 교인들이 많이 있던 적건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던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는 자, 주님의 심정으로 사역에 임하는 자,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피고 무릎 꿇고 미움과 정죄가 아닌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들, 원수를 사랑하는 종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는 양문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영적대각성집회는 15일 저녁 '지나가는 자와 예루살렘의 딸'(애2:11-16), 16일 새벽 '기다리시는 하나님'(창35:1-5), 16일 저녁 '변화를 받아라!'(왕하13:14-19), 17일 새벽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사 13:14-19), 그리고 17일 저녁 '성령충만을 받아라!'(행 2:1-4)라는 제목으로 송용걸 목사가 각각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단장 장영순, 지휘 조한우)은 제14회 정기연주회를 22일(주일) 오후 7시30분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한다.

▲문의: (213)255-6124

영상설교 및 교회영상물제작 세미나

영상설교아카데미 LA지부(회장 광부환 목사)가 영상설교 및 교회영상물제작 세미나를 24일(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시크릿가든(올림픽+웨스트레이크)에서 개최한다. 세미나 강사는 지부임원 양경선 목사(남가주교협 총무)와 임인철 목사(한미장로교회 부목사), 한주식 목사(현대설교연구원 소장), 광소건 목사(실비아카데미 대표)가 나서며, 교육내용은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3D, 플라주, 포토샵, 포토스케이프, 파워디렉터, 동영상 편집,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스마트폰 100% 활용법, 김포, 한소, 캠퍼시아, 무비메이커, BT(글자 데코), 오펜 등으로 진행된다. 회비는 10달러(점심포함)이며 노트북 1개, 복사기 등 경품이 마련된다. 참가를 원하면 꼭 예약해야 하며 노트북을 지참해야 한다.

▲문의 및 예약: 광부환 목사(213-321-4433) 양경선 목사(213-255-1725)

어린이전도협회 교사강습회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9월 30일(월)부터 4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전도자들과 교사들을 위한 교사강습회를 갖는다. 전도자, 교사, 유치원 원장 및 선생님, 학부모 등 전도에 관심 있는 모든 크리스천은 참석이 가능하며 등록비는 무료. 찬송과 율동, 어린이 전도의 이론과 실제, 요절암송법, 시청각 자료교실, 공과 교안 작성 & 새 소식반 전도반 운영 등을 소개한다.

▲문의: (213)382-1544

Thy Kingdom Come 교사교육 세미나

장사모(장애인을사랑하는사역자들의모임/대표 김의구 목사)는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문가와 사역자들과 함께 12주간에 걸쳐 나성영락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신약의 인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21일 시작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장애인 사역자, 교사 및 봉사자 등 참석이 가능하며 참가비 50달러.

▲문의: (213)247-4833

'아기사랑 요게벳' 제3기 개강

아기사랑 요게벳(Jochebed, 대표 이경숙 사모)에서 제 3기 수업이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9주에 걸쳐 진행된다. 이 모임을 통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과 아기와와의 대화, 의사소통, 감정소통, 아기언어의 이해와 아기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게 된다.

▲문의: (714)766-9274

사랑의빛선교교회 3대 담임에 윤대혁 목사 9월 8일 당회 인준, 10월 6일 공동의회



담임목사가 공식이었던 사랑의 빛선교교회가 제3대 담임목사로 윤대혁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부목사)를 최종 선정했다. 본 교회는 교회 홈페이지와 후보를 통해 지난 9월 8일 당회인준으로 윤대혁 목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윤대혁 목사는 20일(금)부터 22일(주)까지 열리는 부흥회 이후 열린 제직회와 오는 10월 6일 예정인

공동의회를 통해 청빙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윤대혁 목사는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총신대학교에서 B.A.와 M.Div.학위를 받았으며 요류교회 청년부 담당 전도사(2000년-2003년), 남가주사랑의교회 전도사(2003년-2004년) 한어대학부 담당 목사(2004년-2007년), 한어 청년부 담당목사(2007년-2012년)로 섬겼으며, 현재 동 교회 여제자반, 평신도사역개발원 총괄, IT사역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부인 윤지나 사모와 재원, 예원 두 자녀가 있다.

(박준호 기자)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미션라이프]예장 합동이 오는 23일 개막되는 제98회 총회에서 과연 개혁과 화합을 일궈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가스총 사용, 용역동원, 급작스런 파회선언 등

양측은 16일 대전에서 '총회화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열고 총회사태 해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합의한 '제5차 실행위원회 결의를 취소하기로 하

이건영 교강협 대표회장은 "합의문 작성 때 분명히 비대위 주요인사 5명에 대한 총대권 정지와 97회 총회 헌의안·긴급동의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5차 실행

장은 "97회 총회 관련 안건이 총회 현장에서 철저히 다뤄질 때 진정한 총회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대웅 총회화합을위한추진위

1년여 파행 예장 합동 총회서 대화합 일궈낼까

로 지난해 총회를 파행으로 물고간 당사자와 지지세력은 '모든 문제를 덮고 가자'며 대화합을 외치지만 개혁그룹은 '책임자 처벌이 선행될 때 화합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며, 상호간의 고소고발 건을 취하한다'는 문구 중 일부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접한 교회갱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교강협)와 옛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인사들이 불참해 대화가 무산됐다.

위원회 결의를 '취소'하기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취소'가 '재판'으로 변경됐다. 이것은 97회 총회 관련 헌의안과 긴급동의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쑤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회

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13일 실행위원회 영상을 다시 보고 문구 수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전화상으로 뭐라고 말해 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4개 장로교단 총회서는...

이번 주요 교단 총회에서는 교회를 보호하고 기독교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결의와 조치가 이어졌다. 또 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회 현안에 대한 신학·목회적 입장도 표명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 성경적으로 잘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성에 조장 우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권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관련, 주요 교단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장 합신은 '성적 지향(동성애) 등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안'을 통과시켰다. 예장 통

각한 저출산 실태와 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회적 차원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또한 자살 문제와 관련, 신학자 등을 통한 심도 있는 연구와 세미나, 토론회를 거쳐 산하 교회에 신학적 참고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교단 간 입장을 달리했다. 예장통합은 종교인 과세 문제에

교회 내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절반의 수확을 이뤘다는 평가다. 예장통합은 총회장립 이래 처음으로 총회 특별위원회로 '여성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하지만 여성총대에 대한 증원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총회에는 총대 20명 이상 노회는 의무적으로 여성목사 1인 여성 장로 1인을 총대로 선출해달라는 청원안이 제출됐다.

이단·동성에 단호 대처...기독교 정체성 수호하고 자살·종교인 과세 등 사회적 현안 논의도 잇따라

대표에 대한 교류 금지 청원을 채택했다. 대책위는 "성경의 역사를 신들의 전쟁(하나님과 마귀)으로 보는 이원론적인 사상 등 심각한 이단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도 '인터넷에 대한 예외주의 및 참여자'키로 한 제96회 총회 결정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예장 통합 및 합신은 '가게 저주'를 이윤호 목사에 대해 이단 해제를 결의했다. 앞서 이 목사는

합은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는 한편 총회장 명의의 입장을 발표키로 했다. 예장 대신의 경우,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가칭'종교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입법 반대를 공식화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의도 잇따랐다. 예장통합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심

대해 "사회적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수용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반면 예장대신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는 안을 통과시켰다. 성도들이 납세한 돈에서 현금한 것이므로 목회자 세금은 이중 과세이며, 목회자가 갑근세를 내게 되면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예장 합신도 종교인 과세 규정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예장 개혁과 첫 통합 총회를 치른 예장 백석은 관심 사안이었던 여성장로제도 신설안이 '시기상조'라는 총대들의 반대에 부딪혀 기각됐다. 예장대신의 여성목사 안수건과 예장 합신의 여성총리 확대 방안도 빛을 보지 못했다. 이 밖에 예장통합에서는 교계 처음으로 총회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 피크제'와 명예 퇴직제도 등이 전격 도입됐다.

예장 통합 98회 총회 폐막 목회대물림 금지 9월부터 전격 시행

한국 장로교를 대표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동엽 목사) 교단이 목회대물림금지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에 이은 두 번째로 향후 관련 사안을 다루는 타 교단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예장통합은 12일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김삼환 목사)에서 총회를 갖고 목회대물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통합 총회는 총대 10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회대물림'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79표, 반대 870표로 "목회 대물림에 반대한다"는 지지세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총회는 이어 관련 법안을 마련

해 이번 회기부터 목회대물림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도 투표를 실시, 800표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다. 이에 따라 통합교단 산하 8400여 교회는 이달부터 목회 대물림이 금지된다. 안영민 통합총회 사무국장은 "대물림, 즉 아버지 목사가 목회자인 자녀에게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물려주는 행위는 규정이 없더라도 당장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내년에 열리는 99회 총회 때까지 세부 규정이 마련돼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회에 따르면 법안은 교단 헌법 시행규정을 손질해 구체화된다. 이를 위해 총회는 헌법개정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평양노회 등 9개 노회가 올린 관련 헌의안과 기감이 시행 중인 규정도 참고하기로 했다. 기감의 경우,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의 목회대물림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목회대물림 금지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1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교단장기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우리 교단의 권위와 위상,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목회대물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덕근(군산노회) 장로는 "목회대물림 금지법안은 교회의 자치권과 고유권인 담임목사

청빙권을 뭉개는 것"이라며 대물림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규일(서울동남노회) 목사는 "(목회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1년 정도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목회대물림금지 활동을 펴고 있는 기독교시민단체는 통합총회의 대물림 방지법안 통과 소식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통합 총회는 이날로 나흘간 치러진 제98회 총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WCC 총회 '협력' '열리는데 공감' 아니다"

한기총, WCC 상임위와 공동합의문 입장 발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16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와의 지난 12일 조찬모임에 참석했던 한기총측 7인 모임을 갖고 당시 양측이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상임위원회는 폐기처분 한 적이나 결의한 바가 없다' 2. 신학자 4인을 선정(양측 2인씩 추천)해 한국교회 앞에 우리의 신앙관을 발표하기로 한다' 등 2개항으로 구성됐다.

한기총은 "한기총과 WCC 상임위가 작성한 합의문에 대한 진위(眞僞)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지난 12일 WCC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작성한 합의문은 3시간여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지 어떤 결론을 내린 자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된 1·13 선언문은 당시 한기총의 홍재철 김자연 목사와 준비위의 김삼환 김영주 목사가 합의한 것으로, 종교다원주의 배격, 공산주의·인본주의·동성애에 반대, 개종전도금지주의 반대, 성경 66권의 무오성 천명 등 4개항이 담겨 있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WCC부산총회를 위해 협력하려 했으나 김영주 목사가 과거를 선언함으로써 무산됐다.

한기총은 특히 "WCC 제10차 총회에 대한 '협력'이나 '열리는데 공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기총은 이날 모임에서 1·13 선언문과 관련, "1·13 선언문을 폐기한다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준비위 측은 "WCC준비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선언문을 폐기하거나 채택하거나 공식화한 적이 없다"고 설명해 합의문구 1항이 작성됐다.

한기총은 "당시 회담에서 1·13 공동선언문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측이 '쓰레기'라고 표현하며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해 WCC 준비위 측에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WCC 상임위원들은 사과 뜻을 표했다"며 "이로써 양측은 공식적으로 1·13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합의하게 된 것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양측은 조만간 새로운 선언문을 작성해서 발표키로 합의하고 이를 2항에 담았다. 모임에 참석한 김성광 목사는 "양측이 2인씩 추천해 4인의 신학자들이 검토 작업을 거친 뒤 도출한 선언문을 갖고 양측 대표들이 다시 만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기총은 "그 결과 합의문에는 1·13 선언에 대해 'WCC 상임위가 폐기처분한 적이나 결의한 바가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고 미진한 부분은 신학자 4인(양측 2인씩 추천)을 선정해 한국교회 앞에 신앙관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삼환 목사는 조찬모임 인사말에서 "WCC 총회를 4년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어렵게 얻은 것이 없었다"며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갖고 우리 세대에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총은 "신학자 4인 위원회에서 나온 신앙고백서가 중요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순교자정신이 살아 있는 한국적 신앙고백서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재철 목사는 "WCC 측에서는 부산 총회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도 총회를 막거나 반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부활만을 갖고 대화를 나누다면 좋은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합의문 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7인 모임에는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을 비롯해 김자연 이강평 김성광 이승렬 이건호 목사, 배인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한기총측 참석자인 이건호 목사는 "모임 전에 몇 번 만나 대화를 했으며 양측이 이해관계가 맞아 오늘 모임을 갖게 됐다"며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시종 일관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조찬모임에서 발표한 합의문에 대해 합의문의 일부 문구를 놓고 양측이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큰 각대에서는 한국준비위와 한기총이 WCC부산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는데 일관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미션라이프 인터넷 판이 12일 보도했다.

준비위측 참석자인 손인용 목사는 이날 오후 1시 한국준비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WCC부산총회를 40여일 앞두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WCC에도 유익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WCC총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이해시키고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이 서명한 합의문은 '1. 2013년 1·13 선언문에 대해 WCC

교회론 도와드립니다.
(516)227-1203, revpakm@gmail.com



모나리자 스킨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줄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정맥 (Special 기계)	1회 \$45	10회 \$400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이불 빨래 전문업체

Free Pickup & Delivery

Yes Dry Cleaning
213-268-6677

빨래하는 시간을 절약 하세요!!!

이불	\$9.99	UP TO
Y-Shirt	\$1.50	UP TO
양복 상,하	\$11.99	UP TO

대형 극세사 오리털 이불
대형 커튼, 유니폼, 단체복
가죽, 카페트, 밍크

FREE DELIVERY

한인타운, 다운타운 내 > 수거 > 세탁 > 배달까지 YES 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목회자 분들께 특별서비스 해 드립니다.

선교 펴기 코이노니아선교회

코이노니아선교회에서 문안드림며 사역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선교회는 2009년 설립되어 노인양로사역, 심방사역, 찬양사역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Wings of Joy 찬양사역의 일환으로 제 47회 공연이 Tustin Care Center에서 있었습니다. 이 찬양사역을 위해 Wings of Joy 1회부터 찬양사역자로 동역하고 있는 최애리 형제를 소개합니다. 첼로를 가슴에 안고 미국에 온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5년이나 되었습니다.



47회 연주회는 박종희 목사의 설교 후 이어진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청중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선공연을 위해 방문하는 양로 병원, 노인아파트, 케어센터, 노인

건강센터 등지에서 과거 함께 신앙 생활하던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젊은 날의 추억은 한갓 허튼 꿈이라”는 가곡의 노랫말처럼 늙고 병든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리고 “세월에 장사 없다”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성경말씀처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다짐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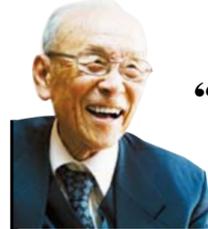


우리 선교회에서는 그동안 7월 17일 알콧양로병원에서 박종희 목사 집례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7명의 세례자를 위해 병원에서 동거동락하는 환자들과 세례자

가족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줌으로 더욱 뜻깊은 세례식이 되었습니다. 세례식 후 가족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환히 웃는 시로타사씨는 90세를 훌쩍 넘겼으나 7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밝고 건강합니다. 세례증서와 세례자 사진은 8월 7일 전달했습니다. ●7월 23일 벨양로병원에서 우삼림 목사 집례로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8월 15일 Fullerton에 소재한 Greenfield Care Center에서 48회 자선연주회가 있습니다. ●신은희 권사, 최병숙 권사가 Paramount 양로병원 심방사역 담당자로 7월부터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 사역이 더욱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박종희 목사 (310)508-2733



방지일 칼럼 (8) “본대로 들은 대로” 특별집회

옛날에는 개교회적 사경회보다도 사경회가 크게 성행했다. 사할 별 혹은 교회에서 도 사경회를 하면 전 교회의 도 사경회로 세례, 학습, 관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별로 분반 공부를 한다. 가슴에 단 이름표의 색깔에 따라 그 들어가는 반이 구별된다. 참으로 성공공부다운 공부였고 교육이었다. 그리하여 아침 새벽기도회, 밤이면 부흥성회였다. 주일을 제외한 한 주간, 지금으로 치면 장기간이라 할 수 있겠다. 성경공부는 구역의 목사님들이 담당하였다. 성경은 지정된 성경이라 이런 도 사경회에 계속 참여하면 성경공부는 제법 하게 된 것이다. 좋은 지도양성이었다. 새벽이나 저녁 집회를 위해선 외래 강사를 초청함이 상례였다.

근자에 와서는 시간도 반으로 줄었고 낮 공부는 없는 때가 많고 별 제위명(伐齋爲名)으로 부흥회가 심령부흥회로 나아간 듯 하다. 연중 행사격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 경향이 된 듯 하다. 말하자면 신령한 잔치 운운하여 교회적으로 큰 행사임에 틀림없고 그 강사 집례는 정중하게 유적으로 대연이 벌어지고 절대가정인 수고와 대단하다. 이런 큰 행사를 치루는 맛이 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니, 한 지나는 행사로 해치우는 식도 없지 않다. 비록 단 기간일망정 정중하게 신중하게 지냈으면 한다.

우선 초청 강사로 담임목사가 자기 맡은 단을 내어주는 일이다. 어찌 소홀할 수 있으리요, 자기 목회에 맞게 자기 맡은 양을 아는 목사는 그 양을 먹고 기르는데 걸맞은 목사를 초청해야 할 것이다. 신중을 기할 것이다. 개최 시일은 모든 교인이 잘 출석할 수 있을 시기를 정할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강사도 적어도 일년전쯤 미리 택하고 교섭하여야 할 것이다.

임기응변으로 해서는 안된다. 상당한 기도준비로 한번 성회를 여는 그 값을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그저 연중행사로 한번 지나가는 식으로 해치우는 경향이 많이 보인다. 우리 모든 행사는 진실하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호응하도록 일단 정성을 다하는 것이 본분이다. 이웃교회에 모모목사가 와서 야단법석이라고 몰려다니는 교인들이 어떤 때는 우리를 그 분을 청하는 이야기기도 목사에게 전해진다. 나는 이런 때에 단단한 뺨끼를 박는다. 내가 이 교회를 노획로부터 맡은 바니 이 단은 내 전용 제단이라. 누구를 세우든지 내 뜻에 의한 누구의 권고를 내게 되어있지 않다. 모든 목회 설계가 되어있는데 일시적으로 흥분의 집회는 하지 않는다. 그런 제의는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단단히 타이른다. 다시는 그런 제의를 감히 하지 않는다. 계획 없는 집회는 하지 못한다.

내 자신이 청함을 받아 가서 집회하면서 보면 몇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다. 한 부류는 연중행사의 일부로 지나가는 일로 하는 것이다. 다른 부류는 어떤 목적이 있어 그 목적 때문에 한다. 목사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좀 열심을 내기 위하여 그 목적이 목사 자신에 좀 도움이 될까 교회의 문제가 좀 좋아질까 하는 목적에서다. 심지어는 헌금을 위하여 집회를 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는 없다. 사경회, 집회, 부흥집회는 그 집회 자체가 하나님 찾는 계기가 되어 만족해야 한다.

임기응변으로 만나서는 ‘한번 저희 교회에 와주세요’ 해서 대답했다.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는 것인지 아무 말 없이 지나간다. 나는 시간을 할애해 봤는데 무소식이다. 그분의 목회도 그런 식이라면 이는 참으로 곤란한 일이다. 도무지 계획성 없음이 나타나 는 것이다. 몇 번씩 중복 초청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 그래서 목회님이 넘어서신 분이라 그 의도하는 바가 생각 있게 철학 있게 목회하시는 분임을 알만하다.

특수한 사람의 간중집회를 부흥회로 대체하기도 한다. 크게 위험한 일이다. 열은 신앙 체험을 간중하는 것에서는 얻는 것보다 손해 보기가 쉽다. 그 자신에게 또 듣는 이에게 그러하다. 간중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과장에 불과하게 된다. 정중한 교회의 집회를 생각 없이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생각 있게 철학 있게 해야 하는데 더욱 성회이리요.

(1996년, 1권)

소망소사이어티, 유진벨 재단에 1만불 전달

소망갤러리, 간호사협, 원로목회자들이 후원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유진벨 재단의 회장 인세반(Stephen W Linton) 박사를 초청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9일 오전 11시 소망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소망갤러리에서 모금된 기금과 간호사협회, 그리고 소망소사이어티를 후원하는 원로목회자들이 모금한 금액 1만 달러를 이날 인세반 회장에게 전달했다. 인세반 회장은 “유진벨 재단은 지난 95년 한인들이 의해 북한에

식량지원 통로로 시작했으며 지난 97년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결핵퇴치 지원요청을 받은 후 현재까지 북한 전역에 25만 여명분의 치료약을 공급하며 북한주민의 결핵퇴치를 위해 뛰고 있다”고 밝혔다.

인 회장은 “본단의 현실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대신 접근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현재 북한결핵퇴치를 위해 활동하는 단



소망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유진 벨 재단 후원금 전달식을 마친후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체는 유진벨 재단이 유일하다. 북한의 결핵환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말했다.

한편 이날 소망소사이어티는 김병희 전 라구나 힐스 한인회 회장에 흥분대사 2호 임명식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성경적 호 사상 물려준다”

효사랑선교회, 미주청소년 효사랑 글짓기/그림 시상식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는 2013 미주 청소년 효사랑 글짓기, 그림 시상식 & 축하공연을 14일 오전 10시 하나교회(담임 박종기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자녀들을 절대적으로 성경적 효사랑으로 양육해 다음세대를 이끌어 갈 리더로 키워야 한다. 그것이 이번 시상식을 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흥권 목사(페트라한인교회) 사회로 시작된 시상식은 김영찬 목사가 개회사를, 남승우 목사가 개회기도, 미션양상을 ‘G’가 특별연주를 했으며 임영호 목사(해의한국기독교문인협회 회장)가 글짓기 심사평을, 다니엘윤(아리랑아트협회 회장)이 그림 심사평을 했다. 이어 박용덕 목사(뉴스퍼밋뷰먼트 상임대표)가 축사를, 유수연 ABC교육의원 후보가 격려사를 했으며, CTS어린이합창단과 Seed of



Worship어린이합창단이 축하공연을 했다.

이날 행사는 주도진 목사(부모님선교회 대표)의 축사로 마쳤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글짓기부문 △대상: Jinnu Kim △최우수상: Jae Jeong △우수상: Joseph Shin, Kyong Jin Lee, Dachan Min △장려상: Irene Chu, Joseph Park, Joyce Park, David Chu, Daniel Chu △특별상: Lael Choi, Jason Goo, Issac Lee, Justin

효사랑선교회 주미 청소년 효사랑 글짓기 그림 시상식에서 글짓기 부문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Jinnu Kim 학생(사진 왼쪽)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Jae Jeong 학생(사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시상자로 나선 민경업 목사와 김영찬 목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Park ▲그림부문 △대상: 없음 △최우수상: Jacob Shin, Andrew Park, Emily Choi △우수상: Grace Yoon, Rachel Pak △장려상: Jasmine Lee, David Jang, Yoonhye Kim, Cara Kim, Andy Shin △특별상: Caleb Han, Angeline Yi, Esther Shin △특선: Jennifer Kim △임선: Esther Shin.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미연합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월-토)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 오전 6:00 사택기도: 5:30(월-토), 6시(토)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전 6:30 EM: 대안예배: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1:1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9:45,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저녁 7:30	등문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7:45	등산성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 아침예배: 오전 9:30 3부 영어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전 12:30(영성)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새천양교회 담임목사: 변운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미주영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영어)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전 12:30(영성)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안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성) 주일 4부예배: 오전 9:45,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전 11:00	얼마인침체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영성)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성)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6:0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영어예배: 오전 9:00(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4부예배: 오후 4:00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수요 찬양: 오후 7:3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성) 영어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



선교 편지

필리핀

안녕하세요. 필리핀의 남부 잠보앙가에서 사역하는 오정윤 선교사입니다. 오늘 필리핀 전국 뉴스에는 저희 잠보앙가 도시에 관한 기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들 현탁이와 준탁이가 학교에 등교하려고

는 내전이 저희 마을에서 발생하였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슬람 반군단체 반군들은 인질을 주로 여자 아이들을 잡아 이슬람 회당 안에 넣어두고 잠보앙가 시와 정부를 상대로 협상하려고 하며, 협상이 안되면 바로 사람을 죽이곤 합니다.

이슬람 반군 단체(모로민족해방전선:MNLF)의 반군들이 시내 바닷가 주변의 5개 마을(달룬달룬, 싘따 바바라, 싘따 까팔라나, 리혼도, 마라키)에 침투하여 주민들을 인질로 잡았고, 경찰과 군인들을 상대로 총격전을 하였습니다. 현

지 못했고 라디오만 뉴스를 하여 하루 종일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 2001년 11월에도 여기 잠보앙가 도시 안에서 내전이 크게 일어나 3일 동안 모든 비행기, 고속버스, 배가 외부와 차단되었는데 그때 저희 현탁이는 3살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현탁이를 얻은 안고 산을 넘어 피신하였던 일이 옛 그제 같은데 현탁이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은 15년 전에 잠보앙가 지역을 모두 철수하였는데 여긴 좀 외지다 보니 변화가 없고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반군들이 잠보앙가 시청의 국기를 내리고 MNLF 이슬람 반군의 국기를 달려고 하고 있고, 잠보앙가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어수선해지면서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금지가 발령되었습니다.

-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빨리 모든 사태가 안전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내전이 더 길게 진행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 잠보앙가에서 사역할 때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잠보앙가에서 오정윤 선교사

필리핀 정부군-반군 충돌, 민간인 피해도 우려

(헤럴드 생생뉴스, 9/9)

필리핀 정부군과 이슬람 반군이 9일 남부지역에서 충돌, 최소한 6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방송이 9일 보도했다.

ABS-CBN방송은 이날 새벽 남부 잠보앙가 시 인근에서 정부군과 이슬람 반군 단체 모로민족해방전선(MNLF) 세력이 교전을 벌였다고 전했다. 잠보앙가 시 측은 이날 교전으로 해군 병사와 경찰관 각 1명이 숨지고 민간인 4명도 희생됐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의 교전 와중에서 주민 200여명이 중간지점에 갇혀 있

향 취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슬람 분리단체, 필리핀에서 인질극...6명 사망

(머니투데이, 9/9)

필리핀에서 이슬람 분리주의 단체가 인질극을 벌이며 당국과 대치해 최소 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

9일 필리핀 선스타 온라인판과



있던 것으로 알려져 민간인 피해도 우려된다. 마리아 이사벨 클리마코 잠보앙가 시장은 MNLF 반군들이 인질들을 방패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군 측은 약 300명의 반군이 도심 진출을 위해 5개 마을을 기습 공격했다가 군의 저지를 받았다고 충돌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당시 도심에서 정부를 비난하려 가두시위를 벌이던 세력을 지원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측의 유혈충돌에 놀란 수천명의 주민들이 피난길에 나서는 등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또 각급 학교와 은행, 기업체 등이 문을 닫았으며 현지를 이류하는 항공편도 운

주요 외신에 따르면 '모로민족해방전선'(MNLF)으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 약 400명은 이날 오전 4시30분쯤 필리핀 민다나오 섬 서부 삼보앙가 시(市)에서 인질을 잡고 당국과 충돌했다. 이들은 9일 현재 20여명의 인질을 붙잡고 있으며, 당국은 삼보앙가 시를 봉쇄하고 있다.

이사벨 클리마코 삼보앙가 시 시장

“이번 사고로 경찰 1명, 해병대 1명, 시민 4명 등 6명이 숨졌고 24명이 다쳤다”며 “반군 측 피해는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13세기경 이슬람교가 유입됐으나 16세기부터 350년 동안 스페인의 통치를 받으며 카톨릭이 전파됐다. 20세기 중반 미국의 식민 지배를 거쳐 독립한 이후 카톨릭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슬람교 세력을 차별했고, 특히 마르코스 정부가 1971년 모로족을 학살한 사건을 계기로 MNLF가 결성됐다.

필리핀 정부와 MNLF는 1976년 리비아의 중재로 트리폴리 협정을 체결해 13개 주와 9개 시를 이슬람 자치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이후에도 반군의 무력항쟁은 끊이지 않았다.

‘아시아의 라틴 도시’로 잘 알려진 삼보앙가 시는 17세기 스페인이 이곳에 요새를 건설한 뒤 이슬람교도인 모로족(族)과 카톨릭교도의 싸움터가 됐다. 현재는 주로 카톨릭 신자들과 무슬림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오고 있다.



하는데 하늘에서는 헬리콥터가 많이 돌아다녔고, 학교의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립빠빠 마을에서 저희 부부가 새희망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도 갑작스럽게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시내에서 내전이 일어나 저희 집과 거리가 8km 정도 되기에 좀 괜찮지만 2001년 11월 당시

재 시내에 주둔하고 있는 이슬람 반군들과 다른 지역에서 다시 수백명의 반군들이 잠보앙가 시내로 오고 있는데 이들이 함께 집결하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보앙가 도시는 쥐 죽은 듯 조용하였습니다. 잠보앙가 지역이 아직 낙후되어 실시간으로 텔레비전 뉴스방송은 진행

십자말 • Cross Word (11)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가로 푸는 열쇠>

1. 예수님 나신 곳(마2:1).
4.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 간구함.
7. 딱 잘라서 결정함(겔20:33).
9. 가리키어서 이끌어 주는 사람(삼상9:16).
11. 절뚝거리리는 사람(레21:18).
14. 머리털을 깎음(렘47:5).
16. 손과 팔이 서로 잇닿은 부분(신6:8).
18. 배고프고 목마름(암8:11).
20. 팔레스틴의 한 지명(삼하2:24).
22. 고벨료의 고국(행27:6).
25. 머리털이 없이 벗겨진 머리(왕하2:23).
28. 힘들고 고생스러움(사5:10).
30. 로마의 첫 황제 옥타비아에게 주어진 칭호(눅2:1).
31. 큰 용사의 감독 삼디엘의 부친(느11:14).

<세로 푸는 열쇠>

2. 들에 절로 난 포도(사5:4).
3. 호리족속 디손의 장남.(창36:26).
5. 애굽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창39:1).

6. 예수님 제자 중 의심 많은 자(요20:27).
8. 굳은 마음, 변하지 않는 의결의 절개(딤후2:9).
9. 쥘의 부스러기(나1:10).
10. 아들과 손자(출34:7).
12. 오지 그릇(명사).
13.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창26:6).
15. 발목에 거는 고리(민31:50).
17. 목이 부어 아픈 병(출35:22).
19.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것을 빼어 하와를 지었다(창2:21).
21. 여호수아가 패전을 맞본 곳(수7:3).
23. 노아의 아들 야벳의 손자요 아완의 아들(창10:4).

십자말 정답

이	하	기	리	부	지	배
나	의	아	의	도	포	배
그	의	산	의	저	간	배
히	관	코	목	간	배	
	간	아	배	정	배	애
부	신		기	배	배	애
나	포	포	관	배	배	기
배	관	관	관	배	배	기
관	관	관	배	배	배	기

나노 기술의 놀라운 칼슘흡수

BONSTRONG

인제대학교 나노 공학부 공동 기술개발
Bonstrong 이 약속드리는 골다공증 없는 세상

INHIS Inc
POWERBOLIC USA
laboratores Inc
Made in U S A

동부: 737-570-3611
서부: 310-903-1792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예배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BURN + PRINT

전도용 물티슈 판매

TOLL FREE: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신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 특전: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윌리엄캐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43)

미국사회 일원으로서의 미래적 과제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교회 선교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사회는 이제 까지 걸으려는 기독교 국가이며, 의식과 행동들이 잔뜩(gentle)하고, 민주적이며, 또한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래서 한국인들을 비롯한 많은 민족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주해 올 만큼 근사한 동경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패락과 마약, 알코올 중독에 노출되어 왔고, 개인주의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왔으며, 인종차별, 빈부의 격차, 그리고 힘의 불균형이 매우 심한 참으로 문제가 많은 사회였습니다.

인종/다민족/다문화 사회였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대표적인 인종차별의 사회라고 불리는 것이 더 합당할 정도입니다. 최근에 와서야(1960년대 이후) 많은 선각자들이 인종차별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뜻(모든 민족이 평등한)에 어긋나며 따라서 의롭지 못하며 반드시 회개해야 할 사회적 죄임을 활발하게 주장하며 이를 법제화하는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인종차별이 문제다"라는 주장을 넘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많은 교회들과 교육기관들에서도 다인종/다민족/다문화 등을 포함하는 소위 "Diversity"에 많은 가치를 두고 이

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종차별의 객체는 한번도 되지 않고 종교 차별의 주체였던 부류들이(백인 영국과 개신교도들)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미국사회의 모든 차별의 객체들은 또한 차별의 주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한인들도 아프리카와 미국인들(Afro-Americans; 흑인들)이나, 다른 아시아와 미국인들(Asian Americans), 그리고 라틴계열 미국인들(Latin/Latino/Hispanic Americans)을 차별한다는 말입니다(특히 요즘은 한인 비즈니스들에서 많이 일하는 라틴계열 미국인들(흔히 "멕시칸들")을 연중중 업신여기고 차별하곤 하지요.

미국사회 시급한 화두 인종적 화해에 한인교회가 앞장서야 차별받는 민족끼리도 서로 차별하는 모습은 더욱 안타까워

술적으로도 더 이상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기독교적 신념과 가치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덕이 무너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높은 실업률과 부채 및 부도의 이야기만 넘쳐나는 경제 또한 무너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사회는 전체적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지닌 사회가 되어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많은 그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에,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사회에서 살아갈 자녀들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우리 한인교회는 이제 미국사회 전반의 미래를 그쳐 좌시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사회 전반의 상처와 아픔을 돌보고 올바르게 교육해야 할 부분들이 참으로 여러 방면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종차별문제와 인종화해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를 실현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고 가는 것은 실생활에서의 실천이러기보다는 말이 많이 앞서는 듯합니다. 법적 규제는 때때로 애매하고 적용하기에 너무 광범위하기도 합니다. 이인종으로서 우리 한인들도 실제로 드러난 혹은 드러나지 않은 차별들을 경험해왔습니다. 물론 미국사회의 모든 자들이 이러한 인종차별을(교묘하게 혹은 드러나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인종의 벽을 넘어 모든 인종의 사람들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미국사회에서 인종차별을 행하는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인들(European Americans)-백인들(Whites), 코카시안들(Caucasians), 앵글로 색슨족들(Anglo-Saxons), 혹은 백인 영국과 개신교도들(s: WASP)이라고도 할 수 있는-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매우 주도적이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인종차별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사회를 사는 모든 민족들/인종들

그들도 또한 우리를 차별합니다. 인종차별은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참으로 속상하고 아프고 상처가 되는 경험입니다. 부당하게도 내가 열등한 존재인 듯 취급당하고 그래서 억울하고 화나기도 하고 또 때론 서럽고 주눅들고 좌절하기도 하니까요. 이는 우리 한인어들은 물론 우리 자녀들도 경험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이것이 부당하고 의롭지 못한 일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그리스도의 이웃사랑 명령에 매우 어긋나는 일임을 소리 높여 이 사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만큼 진정성이 있거나 오히려 힘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당하면 싫고 아픈 것을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바, "무엇이든 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7:12) 하신 것처럼, 내가 차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대로 남도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한인교회와 미국사회 전반을 향해, 특히 인종차별 및 인종화해의 이슈에 대해 교육적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성신이 이룬 왕국(대상12:23-40)찬357장

사울 나라가 다윗에 고스란히 넘겨진 것은 성신의 역사로 된 사실을 본문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각 지파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했습니다(33). 유다를 위시한 모든 지파들이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고 용사들이 한마음으로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둘째, 성심으로 섬겼습니다(38). 남은 자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셋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40). 다윗형제들이 준비한 잔치에 모두 기

쁨으로 참여한 것 역시 성령의 이그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속의 유야기 시절에도 성령은 뜨거운 사랑과 진리로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하여 언제나 한마음의 연합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엡4:1-3, 행2:42-47). 성신의 인도를 겸손히 따라갑시다.

화 법계를 중심한 삶(대상13:1-14)찬27장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다윗왕국이 법계를 모신 일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왕위성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2, 6). 그룹 사이에 계신 보지 않는 그 분이 진정 이스라엘의 왕위성을 믿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법계를 헤브론에 옮겨려 했습니다. 둘째, 그것은 이스라엘의 기쁨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8). 법계가 들어올 때 기뻐한 것은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란 사실을 증거합니다(8). 셋째, 그것은 이스라엘의 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법계를 옮기는 과정에서의 웃사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케 하심으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은 중심한 삶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 복을 충분히 즐겨우십시오.

수 다윗의 주권신앙(대상14:1-17)찬93장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주권 신앙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자기 재주나 심복들의 충성보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더 확신했습니다(2). 없을 때 얻은 신앙이 있을 때 더욱 더 견고해졌습니다. 나의 나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했습니다(10, 14).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소년시절에 받은 진리

를 알아 된 후에도 변치 않았습다.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을 더 믿고 따랐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다윗의 권위를 높이셨습니다(17). 세상이 퍼진 명성과 열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임을 인정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전수한 다윗처럼 주권신앙을 힘쓰는 성도로 살아갑시다(창12:3).

목 말씀 중심한 생활(대상15:1-15)찬77장

왕국을 세운 후 법계를 그곳으로 옮겨 올법대로 관리하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말씀 중심한 삶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첫째, 왕국 중앙에 모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기초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1). 다윗 왕국의 상징으로 보인 교회는 그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둘째, 레위 제사장이 메고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2). 일전에

웃사가 죽은 사건을 거울삼아 올법대로 레위 제사장들이 그것을 맨 것은 말씀이 모든 일의 방법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어떤 인간적 방법도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합니다. 셋째, 성경을 강조했습니다(12). 말씀 중심은 성경 중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 자체가 진리이며 거룩하기 때문입니다(요17:17). 말씀 중심한 복을 즐기십시오.

금 말씀과 찬양(대상15:6-16:6)찬31장

법계를 맞을 때 찬양대를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충만한 삶이며 예배입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첫째, 찬양이 생겼습니다(4).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돼 찬송하게 됩니다. 성령이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하시면 그곳에 끌리게 돼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엡5:18-19). 둘째, 감사가 생겼습니다(14). 성령이 눈뜨게 하심으로 이미 받은 복을 알게 해 생기는 열매입니다. 그리

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이 이미 내 것이 된 것을 알 때 만족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대1:3). 이것이 참 믿음의 표현입니다. 셋째, 행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1). 이웃의 복을 베푸는 일은 행동의 증거입니다. 백성과 가족의 복을 베푸는 일이 행동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를 모른 미같은 조롱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29). 말씀이 풍성한 삶을 구함시다(골3:14).

토 하나님 중심한 삶(대상16:7-36)찬64장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본문에서 우리는 구원주, 심판주, 섭리주이신 삼위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분께 어떻게 감사할까요? 첫째, 그의 얼굴을 구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11). 은혜와 보호와 평강의 열굴로 자기백성에게 항상 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산 교회를 통해 참된 감사를 드러야 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둘째, 그의 언약에 신실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다(16-17). 자기 백성을 은혜 언약을 따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부자와 군신관계에 성실히 순종할 때 법사의 감사가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셋째, 그 분께 헌신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29).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한 감사 충만한 삶을 살십시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로마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사택기도회: 오전 8: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교우회) VIA DEI QUINTILI 32-30 00175 ROMA, ITALY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1525-7767, HP: (012)1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4-10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490-7000, Fax: (0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2-9419, Fax: (062)522-4834 500-170 경광역시 북구 교문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수령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2동 1418-1, (612-824)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 새벽기도회 Tel: (02)32-440-9000, Fax: (02)440-9099 서울시 강릉구 명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 622-3 (158-053)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정미회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부예배: 오전 5:30 Tel: (02)2-2646-3181~3, (02)2-2646-3184 서울시 안국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5: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3동 713-26호
수령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1(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팩스: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원동 137 번지	시은교회 담임목사: 김경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곡동 419-2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2)2-842-1968, 새벽(011)82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인왕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리기도회: 오후 8:30 Tel: (02)2-786-6579, 새벽(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성동 49-45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리기도회: 오후 8:30 서울 용인시 이천동 302-67 (140-03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동 415 www.yang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예배: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충주시 용두동 259-12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예배: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충주시 용두동 259-12	충진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93-7740 서울시 용인시 이천동 302-67 (140-031)
밴쿠버빌라미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새벽 5:00(월-토) 금요기도회: 새벽 5:00(월-토) 금요기도회: 새벽 5:00(월-토) Tel: (604)556-5780, Fax: (604)55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7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금요기도회: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수요예배: 저녁 9:00 7/14종교개혁: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예배는 월요일) E-mail: hanjkn@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제7회

Glin.tv 통해 연주회 실황 생중계

미주 웨슬리언 연합 찬양제

미주 웨슬리언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7회 웨슬리언 연합 찬양제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교회, 구세군 교회 등 웨슬리언들의 연합과 교류, 일치와 소통을 목적으로 매년 열리는 이번 찬양제에 목회자와 모든 웨슬리언 성도들이 정성껏 참석하시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찬양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여 참가하시는 모든 참가교회 찬양대와 담임목사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리스도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주웨슬리언 연합회 회장 박재호 목사

- **일시: 2013년 10월 6일(주일) 오후 6시**
 - **장소: 찬양교회 3401 W. 3rd St, LA, CA 90020**
 - **전화: (213)232-7284**
- 교회 옆 공터에 100여대 이상 가능한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되었습니다.

특별출연
미주예수교성결교회 목회자 연합중창단

- 올더스게이트 콰이어** (기감미주연회 목회자 중창단)
- 지도: 김미경 사모 (온마음교회)
 - 김중환 목사 (온마음교회)
 - 노진규 목사 (남가주예당교회)
 - 김덕규 목사 (새소망선교교회)
 - 전석호 목사 (제자선교회)
 - 배종완 목사 (어노인팅감리교회)
 - 송기수 목사 (생수의강교회)
 - 김기환 목사 (그레이스마운트교회)
 - 전용현 목사 (한인제일연합교회)

주최: 미주 웨슬리언 연합회(회장 박재호 목사) **주관: 크리스천 위클리**(발행인 조명환 목사)

후원 (무순)

나사렛 성결회 미주한인총연합회(총회장 이봉하 목사), 연합감리교 한인총회(총회장 안명훈 목사), 미주 성결교 총회(총회장 차광일 목사), 미주 예성 총회(총회장 최한오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연회(감동회장 전용재 감독, 간사 임승호 목사, 임영호 목사), 구세군 한인 연합총회, 한국 웨슬리언교회 지도자 협의회(회장 신민규 목사, 사무총장 양기성 목사), 미주 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목사), 미주 감리교 신학대학교(총장 한기형 목사)

2013년 제7회 웨슬리언 연합찬양제 참가교회 (무순)

 드림교회	 이성현 담임목사	 김무섭 지휘자	 LA연합감리교회	 김세환 담임목사	 진정우 지휘자
 사은교회	 구진모 담임목사	 이진남 지휘자	 셋별선교합창단	 이봉조 단장	 오상환 지휘자
 찬양교회·나사렛연합찬양대	 김성대 담임목사	 김해숙 지휘자	 유니온교회	 문병용 담임목사	 이요셉 지휘자
 남가주빌라델피아교회	 임승호 담임목사	 서상민 지휘자	 한빛성결교회	 차광일 담임목사	 이경원 지휘자
 구세군 나성교회	 이주철 담임사관		 로스펠리스교회	 신병욱 담임목사	 임대수 지휘자

미주 웨슬리언 연합회 임원
 고문: 김찬희, 이정근, 김인경, 차현희(역대 회장단)
 회장: 박재호
 이사: 김건도(기감), 김성대(나사렛), 이상복(기성), 이성현(연감), 송정명(예성), 한기형(기감), 오그레이스(기성), 박용덕(예성), 김세환(연감)
 사무총장: 조명환(연감)
 협동총무: 노정해(재무, 나사렛), 조현영(행정, 기감), 윤석길(기획, 기성)

미주 웨슬리언 연합회 2013년 총회 역대회장
 일시: 2013년 10월 9일(수) 오전 11시
 장소: 제이제이 그랜드 호텔 (213)383-3000
 620 S. Harvard Bl., LA, CA 90005

 1대 김찬희 박사 클레어몬트 명예교수	 2대 이정근 목사 유니온교회 원로목사	 3대 김인경 목사 축복교회 담임목사	 4대 차현희 목사 세계웨슬리언교회 회장
--	--	---	---